

3.06	의성군농민회 집행위원회: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3.07	도연맹 1차 집행위원회(13시, 도연맹 사무실)
3.08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전농 상임정책위원회
3.09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 전농 상임집행위원회: 노동자·농민·빈민 합동수련회(유성 유스호스텔, -10일, 의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참석)
3.10	봉화군농민회 운영위원회: 전농 중앙상무위원회
3.11	구미시농민회 월례회의
3.13	도연맹 3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
3.14	지역의보 보험재정 국고지원 50%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15시, 동대구역, 의장 참석)
3.15	전농 상임정책위원회: 전농 전술회의(전농 상임집행위원회)
3.17	경북지역 시군 동시다발 영농발대식: 안동시농민회 차량선전전(차량 50여대): 경산시농민회 영농발대식 및 사무실 이전 개소식: 영천시농민회 선전전: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집행위 연석회의
3.18	영천시농민회 신령면지회 창립총회: 상주시농민회 영농발대식: 고령군농민회 일일 주점
3.19	성주군농민회 운영위원회
3.20	전농 협동조합운동가 양성학교(안성): 도연맹 2차 운영위원회(13시, 도연맹 사무실)
3.21	도연맹 임원·농협지역본부 간담회(11시, 농협본부장실): 대경연합 대의원대회 준비소위원회(14시, 대경연합, 사무처장 참석): 민중연대 대표자회의(17시, 대경연합, 사무처장 참석)
3.23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 구미시농민회 고아읍지회 총회
3.24	4·1대회 선전 실무회의(14시, 민주노총, 총무국장 참석): 영양군농민회 긴급운영위원회: 경북여성농민회연합 - 경북지역 여성농민의 실태와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12시, 경북농업인회관 2층)
3.27	의성군농민회 영농발대식: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안동시농민회 긴급운영위원회: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 대경연합 간부수련회: 4·1대회 선전회의
3.29~30	전농 통일일꾼수련회(대전 유성 유스호스텔)
3.30	도연맹 4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영천): 4·1대회 대표자회의(11시, 대경연합):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출범식(축협도본부)
3.31	대경총련 대의원대회(경북대)
4.01	농가부채 해결·신자유주의 반대·김대중 정권 규탄을 위한 노동자·농민·학생대회 및 민중연대 출범식(대구백화점, 14시) 1600여명 참가

	(농민: 200여명, 영천 95명, 안동 40명, 봉화 4명, 영주 10명, 상주 5명, 의성 4명, 영덕 4명, 성주 2명, 고령 15명, 경산 15명, 청송 6명, 구미): 대경연합 일일주점
4.02	범민련 대구·경북 연합 창립5주년 기념대회 및 강연회(15시, 경북대 4합)
4.04	전국농학연추
4.06	대경연합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19시, 경북대 4합)
4.07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도연맹 1차 정책위원회(15시, 도연맹 사무실): 영천시농민회 총선후보자 토론회(시민회관, 16시, 400여명): 상주시농민회 총선후보자 토론 및 서약식(농협회의실 3층 70여명)
4.10	도농학연추 준비회의
4.11	전농 상임집행위원회
4.14	전농 상무위원회
4.18	전농 상임정책위원회: 미군의 양민학살 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18시, 연합)
4.19	도연맹 5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1시, 사무실): 도농학연추준비회의: 4·19혁명 40주년에 즈음한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9시, 연합): 4·19혁명 40주년 기념대회 및 초청강연회(19시, 연합)
4.20	외국자본(이스카, 게이츠)의 노동탄압 근절과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노동청 항의 집회(15시, 노동청)
4.21	1차 도농학연추(15시, 도연맹 사무실): 고령군농민회 회원교육(20시, 농업인회관, 강사: 정광훈 의장,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4.22	대구민주청년회 무료공부방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4.25	대경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영천시농민회 풍년농사기원제 및 초청공연(20시, 시민회관, 350여명)
4.26	미군 양민학살 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전민족조사특별위원회(전민특위) 건설을 위한 회의(18시, 대경연합)
4.27	특기적성교육비 삭감과 관련한 도교육청 항의방문 및 면담(15시, 도교육청)
4.28	미군 양민학살 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전민족조사특별위원회 건설을 위한 사회단체 2차 간담회(18시, 연합): 농업기술원장 항의방문·면담: 전농 조국통일위원회: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4.30	영천시농민회 가족체육대회(10시, 호당미술아카데미, 150여명)
5.0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과 WTO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농민대표자대회(13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4명 참석): 통합농협법 철폐와 농축산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4차 범국민대회(명동성당)
5.04	농민 4대 개혁 입법 쟁취·WTO수입개방 강요·양민학살 주범 미국반대 2000 봄농활(~7일)

5.05	의성 어린이 날 큰잔치 '가슴펴고 어깨걸고'(9시, 의성초등학교, 1,000여명): 안동 길안 어린이 날 행사: 청송 농학연추회의
5.06	도농학연추 실무회의: 도연맹 2차 정책위원회(20시, 의성군농민회 사무실)
5.08	도연맹 2차 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20시, 안동)
5.11	전농 상임정책위원회(20시, 대전)
5.12	전농 상임집행위원회(20시, 대전): 박정희 기념사업반대 국민대토론회(18시, 경북대)
5.14	5·18 20주년 광주항쟁정신계승 민족자주, 민중생존권 쟁취 국민대회(광주역)
5.15	도농학연추 실무회의: 도연맹 3차 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6시, 안동): 전농 중앙상무위원회(14시, 총연맹)
5.16	도연맹 6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20시, 안동 길안): 대경연합 상임집행위원회: 대경총련 출범식
5.17	경북상근실무자 수련회(14시, 안동, 8명 참가): 의성군농민회 어린이날 행사 평가회의(20시, 사무실)
5.18	광주항쟁 정신계승 기념대회 및 강연회(19시, YMCA강당, 한호석 강연)
5.19	가격폭락 전국 농민투쟁(12시, 서울, 9명 참가): '전민특위' 전설을 위한 단체 집행책임자 연석회의(19시, 대경연합)
5.24	경산농민회 등(경산민협), 경산시의회 점거농성(50여명):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5.25	전국 상근실무자 수련회(~26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원): '전민특위준비위' 발족 및 단체 대표자회의(18시, 대경연합)
5.26	한총련 출범식(~28, 부산대)
5.30	대경연합 중앙집행위원회(16시, 연합): 고령군농민회 고령군의회 점거농성(~6.02, 40여명)
5.31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사무실)
6.01	전국농학연추(20시, 서창 고려대학교): 도연맹 3차 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6시, 사무실)
6.02	도연맹 7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20시, 의성군농민회 사무실)
6.03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사회단체 농성(~10일, 동대구역)
6.05	도연맹 비상운영위원회(15시, 도연맹 사무실)
6.08	2차 도농학연추(15시, 경북대 복현강당)
6.09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의 밤(20시, 동대구역, 고석인 부의장, 7명 참가)
6.10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 2차 민중대회(15시, 동대구역, 7명 참석)

6.12	경산시농민회(경민협), 시의회 점거농성: 도연맹 3차 정책위원회(20시, 경산시 의회)
6.13	전농 상임정책위원회
6.15	전농 상임집행위원회: 전민특위 준비위 집행책임자 연석회의(19시, 연합)
6.16	전농 중앙상무위원회
6.17	전국연합 통일일꾼수련회(18시, 청주 심신수련원, 8명 참가)
6.19	봉화군농학연추회의: 영주시농학연추회의
6.20	조국통일위원회 준비모임(20시, 안동): 서부총련 농활학교(연세대학교, 정책실장 강의)
6.21	안동시농민회 예안면지회 단합대회: 고령군농학연추회의(사무처장 강의): 이화여대 농활학교(청송군농민회 참가): 대경총련 농활교양주체교양(장재호 정책위원): 전민특위 대구·경북지역본부(준) 집행책임자회의(17시), 대표자회의(19시)
6.22	전농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WTO와 한국농업' 심포지움(서울대, 100명 참가): 서강대 농활학교(의성군농민회 6명 참가)
6.23	경북대학교 농활교양학교(상주시농민회 15명 참가): 대구·경북지역 범민족대회 준비위원회 결성 간담회(19시, 총무국장 참석)
6.24	전민특위 대구·경북지역본부 결성식(14시, 총무국장, 간사 2명 참석)
6.25	봉화군농민회 춘양면지회 단합대회(고인석 부의장 참석): 영양군농민회 운영위원회
6.26	영덕 - 대구대, 경주 동국대 여름농활 시작(~7월 5일, 4개 마을 150명): 계명대학교 교양학교(성주군농민회 참가): 전문대연합 교양학교(영천시농민회 참가)
6.27	도연맹 1차 조국통일위원회(20시, 의성군농민회 사무실): 영남대 농활학교(영양군농민회 참가): 명지대농활학교(봉화군농민회 참가): 청송 - 이화여대 여름농활 시작(~7월 7일)
6.28	의성 - 서강대 여름농활 시작(~7월 7일): 대구·경북지역 범민족대회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6.29	여름농활 시작(~7월 8일): 도연맹 성명서('농축산물 가격보장·농민4대 개혁입법쟁취! 양민학살 미국반대 2000 통일여름농활'에 즈음하여)
7.04	고령군농민회 협동조합교육(10시, 국악당, 250여명 참가): 범민족대회 준비위원회 집행책임자 회의(대경연합)
7.05	영천 고경면지회 창립총회(10시, 농협회의실, 80여명 참가, 정광훈 의장, 김실경 의장)
7.07	성주군농민회 군의회 점거농성 돌입
7.07~08	각 시·군 농민대회(농민·학생 결의대회) 및 해단식

7.10	전농 상임정책위원회 수련회
7.11	도농학연추 실무회의(안동시농민회 사무실): 대경연합 상임집행위원회: 범준위 대표자 회의
7.12	조직교육일꾼 수련회(유성 유스호스텔, 50여명, 경북 3명 참가: 도연맹 정책간사, 고령 2명)
7.13	경북도농학연추 평가수련회(16시, 안동문화답사촌, 50여명)
7.14	도연맹 2차 집행위원회(9시, 안동문화답사촌): 도연맹 통일학교(11시, 안동문화답사촌, 40여명)
7.17	의성군농민회 마늘생산자대회(9시, 의성읍 마늘장터, 500여명)
7.18	범준위 집행책임자회의(19시, 대경연합사무실, 총무국장 참석): 전농상임집행위원회(사무처장 참석): 도연맹 성명서('경매비리 전면적 수사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에게 백배 사죄하라!')
7.19	도연맹 4차 운영위원회(13시, 도연맹 사무실):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
7.20	전농 중앙상무위원회: 영천시농민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14시): 전국동시다발 국회의원 사무실 농성투쟁(안동 10시 9명, 경산 11시 8명, 구미 13시 6명)
7.21	봉화군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구미시농민회 임시회의: 경북여성농민여름한마당(10시, 성주군 성박숲, 의장, 사무처장 참석)
7.22~23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국민대회(대구 영남대, 농민 20여명 참가)
7.25	농축산물 가격보장·농가부채 해결·WTO수입개방반대 2000년 1차 전국농민대회(13시, 대학로, 경북 930여명)
7.27	전농탄압중단, 개방농정철폐 전농 의장단 명동성당 농성돌입: 도연맹성명서('농협중앙회는 가락공판장 경매조작 사건과 관련한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즉시 진상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주군 농민회 농성 마무리: 통일대축전 대경 준비위 대표자회의
7.28	도연맹 성명서('김대중 정권은 전국농민대회 폭력탄압 사과하고 개방농정 즉각 중단하라!')
7.30	전농 상임집행위원회
7.31	전농 중앙상무위원회
8.01	도연맹 비상 운영위원회(13시, 안동시농민회 사무실): 성주군농민회단합대회(금수면 무학리, 70여명)
8.02	의성 한지형 마늘대책 대토론회(10시, 군청회의실)
8.03	개방농정 철폐, 농민 4대개혁 과제 쟁취, 농민탄압 중단을 위한 2차 전국농민대표자 대회(14시, 종묘공원, 경북 41명 참가): 대구·경북 42개 사회단체 성명서('김대중 정권은 농민탄압중단하고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8.06	통일선봉대 환영식 및 조국통일의 밤(18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8.07	수입마늘저지 및 의성한지마늘 수매가 인상, 최저가격 예시제 쟁취를 위한 의성범군민대회(10시, 공설운동장, 3,000여명): 의성군농민회 정창화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20여명):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방문(구미 5명, 영천 12명): 경산시농민회 선전전 및 경찰서 항의방문: 지역통일선봉대 활동시작(7일 의성, 8일 대구, 구미, 9일 구미, 안동, 10일 안동, 11일 경주)
8.09	도연맹 8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9시, 의성): 전농 조국통일위원회
8.10	안동지역 통일대축전: 통일축전 준비위 집행위(19시, 연합)
8.11	전농 중앙상무위원회: 경산지역 통일대축전(19시, 남천고수부지)
8.12	도연맹 5차 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6시): 남북공동선언 지지 이행을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 통일축전(18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농민 15명 참가)
8.13~15	남북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자주·대단결을 위한 2000년 통일대축전(한양대, 경북 25명 참가)
8.14	전농의장배 농사청년 축구대회(독섬 체육공원, 경북 70여명 참가)
8.17	영천시농민회 - 수입 오렌지 최대수입 대기업 LG, 해태 제품 불매운동 선포식(11시, 수덕예식장 앞, 100여명): LG상사 면담(도연맹 사무실: 의장, 사무처장, 안동 전중렬 회장, 안동 장휘수 사무국장, 권영보 간사, 류은경 간사 참석)
8.18	구미시농민회 단합대회(10시, 일선교 밑):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13시)
8.19	2000년 통일대축전 보고대회(14시, 중앙파출소 앞)
8.22	성주군 의원 총사퇴와 군의회 정상화를 위한 성주군민 결의대회(14시, 옛우시장, 400여명)
8.22~23	도연맹 농민일꾼학교(경주 아화 환경농업교육원, 60여명)
8.23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8.24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8.25	불매운동 관련 MBC와 인터뷰(10시, 영천시농민회): 영천시농민회 박헌기 국회의원간담회(14시, 농협시지부 회의실): 도연맹 6차 사무처·정책실 회의(14시): 비전향 장기수 환송의 밤 '통일조국에서 만나요'(18시, 경북대 대강당, 농민 20여명 참석)
8.26	전농 조국통일위원회
8.28	도연맹 4차 정책위원회(20시, 영천군농민회 사무실)
8.29~30	도연맹 상근실무자 수련회(안동 병산서원)

8.30	상주시농민회 농축산물 수입 악덕기업 LG, 해태제품 추방 결의대회(16시, 풍물시장)
9.01	중앙 상무위원회: 도연맹 성명서('농산물 수입 악덕기업 LG 불매운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9.05	전국농학연추회의(20시, 충남대학교)
9.08	도연맹 9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9시, 의성)
9.19	대경연합 상집위(11시, 연합)
9.28	도연맹 10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5시, 도연맹 사무실)
10.02	전농 상집위·상정위 연석회의(20시, 유성 대운장)
10.04	도연맹 5차 정책위원회(15시, 안동시농민회 사무실)
10.05	도연맹 성명서('국민건강과 생명을 불모로 하는 의사폐업은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국민부담을 가중하는 진료수가 인상, 의료보험료 인상 등을 즉각 철회하라!')
10.06	도연맹 7차 사무처·정책실 회의(17시, 의성군농민회 사무실): 도연맹 11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4시, 도연맹 사무실)
10.10	도연맹 6차 운영위원회3차 집행위원회 연석회의(14시, 도연맹 사무실): 성주군농민회 4차 회원교육(사무처장, 간사 참석)
10.11	WTO 농업협상 설명회 대응투쟁(14시,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 10여명 참석, 플랑, 피켓, 질의투쟁)
10.13	우리농업살리기 일일주점(성주군농민회): 군의원 보궐선거 사무실 개소식(10시, 이도형 청송농민회장 출마)
10.14	세계화 반대, 경제주권 수호, 민중생존권 쟁취 아셈 2000 반대 민중투쟁의 날(15시, 대구백화점 앞)
10.16	도연맹 12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3시, 영천시농민회 사무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접수(11명 접수)
10.18	영천시농민회 회원교육(간담회로 진행)
10.19	영천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19시, 영천시농민회, 영천경실련, 영천 YMCA): 대경연합 상임집행위원회: 봉화군 춘양농협 조합원 총회
10.20	아셈 2000 반대 서울행동의 날(3명 참석)
10.23	청송 군의원 보궐선거 합동유세(고인석 부의장 참석)
10.24	전민특위 집행위원회(총무국장 참석)
10.25	농협투쟁과 관련해서 봉화군 춘양면 회원모임(19시, 의장, 정책실장 참석)
10.26	영천시장 보궐선거: 청송 군의원 보궐선거
10.27	안동시농민회 운영위원회(19시, 사무처장 참석):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집행위 연석회의(19시)
10.28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19시 30분, 사무처장 참석): 대통령 참석 도청 오찬(의장 참석): 주한미군 철거를 위한 토요일마당(15시, 중앙파출소

10.31	앞, 상근실무자 3명 참석)
10.31	99년 12·10 농민대회 관련 정식재판(경산 1인, 예천 2인, 11월 21일 선고)
11.01	제 3회 노동자문화제(19시, 경북대 대강당): 전민특위 집행위원회(총무국장 참석)
11.02	도연맹 13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5시):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전민특위 공동조사단 발족식(19시, 대구여성회 강당, 의장, 상근실무자 3명 참석): 전농 상집위(사무처장 참석)
11.03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집행위 연석회의(19시, 손병국 부의장 참석): 간부양성학교 준비를 위한 북부지역 모임(18시, 의성군 옥산, 정책실장, 간사 2명 참석): 민중대회 위원회 간담회
11.06	의성군농민회 운영위원회(18시, 사무처장 참석)
11.07	전농 중앙 상무위원회(14시, 총연맹, 손병국 부의장 참석):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19시): 청송군농민회 운영위원회(19시, 부남)
11.09	도연맹 7차 운영위원회(14시, 도연맹 사무실): 대경연합 사무실 이전개소식(19시)
11.10	범민련 10주년 기념 강연회(19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강당)
11.11	국회의원 지구당사 점거농성 및 간담회(고령, 성주, 영천, 경산, 영주, 18일 상주)
11.11~12	전국 노동자 대회
11.13	농민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12시, 경북 농업인회관 소회의실, 의장, 사무처장 참석): 간부양성학교를 위한 북부지역 회의(14시, 안동시 농민회 사무실, 간사 2명 참석):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20시, 손병국 부의장 참석)
11.14	대경연합 중앙집행위원회(15시): 전농 중앙상임정책위원회
11.15	전민특위 집행위원회
11.16	도연맹 성명서('농가부채해결 없이 농업회생 없다. 정부는 대선공약인 농가부채해결 약속 즉각 이행하라!')
11.17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대표자 대회(13시, 국회): 도연맹 10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3시)
11.20	범민련 10주년 기념 연회(13시, 영남별장)
11.21	농가부채완전해결을 위한 동시다발 시군 농민총궐기: 7·25 전국농민대회 관련 재판(경산 1명 벌금 30만원, 예천 2명 벌금 50만원): 도연맹 성명서('정부는 허깨비 부채대책 그만두고 농민들의 단호한 요구 농가부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11.22	대경연합 중앙위원회(19시)
11.23	전농 중앙상무위원회(14시): 도연맹 4차 집행위·6차 정책위 연석회의(15시, 의성군농민회 사무실):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19시)

11.24	농민대회 관련 대구·경북지역 42개 사회단체 기자회견(9시, 대구여성회 강당)
11.25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19시): 대구민주청년회 사무실 개소식(18시)
11.26	경산시농민회 상임위원회
11.27	경북농민대회 전술회의(13시, 의성): 봉화군농민회 운영위원회
11.29	경북농민대회 기자회견(11시, 안동시농민회 사무실): 도연맹 15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20시, 의성)
11.30	도연맹 비상운영위원회(12시, 의성군농민회 사무실)
12.02	농가부채특별법쟁취·농축산물가격보장 2000년 경북농민대회(의성, 5,300명 참가)
12.04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2.05	도연맹 16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1시, 도연맹 사무실): 중앙 상무위·상집위 연석회의(19시)
12.06	전민특위 집행위원회(17시, 대경연합사무실)
12.07	농가부채완전해결을 위한 2차 농민가족 총궐기(농기계반납, 농산물 적재)
12.08	농가부채완전해결을 위한 서울 상경투쟁(고속도로 점거, 차량저속투쟁)
12.09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김대중정권퇴진 대구·경북민중대회(14시, 대구백화점 앞)
12.10	전농 비상상임집행위
12.11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2.12	농가부채완전해결을 위한 서울 상경 농성투쟁(한나라당 당사, 21명 참가):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후원회장 투쟁(16시, 동대구관광호텔, 20여명 피켓시위)
12.13	농가부채특별법 여야합의안 거부 시군 동시다발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안동, 상주, 의성, 봉화, 경산, 성주): 도연맹 성명서('여야 3당의 부채대책은 기만이다. 한갑수 농림부장관, 권오을, 이상배, 정창화 한나라당 의원을 경북농민사기죄로 고발한다')
12.14	전민특위 강연회(19시, YMCA 강당)
12.15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19시, 대경연합 강당): 영주시농민회 평은면지회 총회
12.16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문화제(14시, 동대구역):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12.18	전농 8기 2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15시, 대전가톨릭 문화회관, 40명 참가)
12.20	12월 2일 경북농민대회 관련 4명 연행(안동 임극호, 임윤창, 영주 송준기, 안문현)
12.21	간부양성학교 북부지역 준비모임(19시, 의성군 옥산)
12.22	도연맹 9차 운영위원회(13시, 도연맹 사무실)

12.23	전농 상무위·집행위 연석회의(14시, 대전 유락장, 의장 참석)
12.26	대경연합 상임집행위원회(19시, 상주)
12.27	영주시농민회 총회(13시, 영주시농민회 사무실, 회장: 신동근, 사무국장: 김진기): 안동군 예안면지회 총회: 의성군 옥산면지회 총회
12.28	농림부장관 농정시책설명회(10시, 경북농업인회관 대회의실, 30여명): 대의원대회 준비소위원회 회의: 경산시농민회 남산면지회 총회
12.30	북부지역 간부학교 준비모임(13시, 의성군 옥산): 도연맹 송년회
◆ 2001년 활동	
1.03	대의원대회 준비소위원회 2차 회의(12시, 안동): 경북 북부지역 교육준비모임(19시, 의성군 옥산면 사무실)
1.04	고령군농민회 운영위원회: 도농학연추 실무자모임(19시, 경북대)
1.05	도연맹 17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1시, 의성군농민회 사무실): 경북북부지역 1차 교육(14시, 의성군 옥산면 사무실, 30여명 참석)
1.09	구미시농민회 회원교육(11시, 경북농협연수원): 도연맹 성명서('기만적 농가부채특별법으로 농민을 우롱하는 김대중 정권을 규탄하며 구속된 농민을 즉각 석방하라!')
1.10	대경연합 상임집행위
1.11	고령군농민회 총회(19시, 농업인회관 강당, 회장: 박규이, 사무국장: 박태경): 경북북부지역 교육모임(18시, 의성군 옥산면): 대구 MBC인터뷰 - 논농업직불제(사무처장)
1.13	봉화군 춘양면지회 총회(11시, 농협강당)
1.16	북부지역 2차 교육(14시, 영주시 장수면)
1.17	의성군농민회 김학천 사무국장 구속 규탄대회(11시, 의성경찰서): 도연맹 18차 의장단·사무처·정책실 연석회의(11시, 의성군농민회 사무실)
1.20	도연맹 집행위 간담회(18시, 의성군농민회 사무실)
1.30	경상북도 농정시책 설명회(11시, 농업인회관): 대경연합 신년하례회(12시, 아벨리아 뷔페): 상주시농민회 모동면지회 총회·교육(19시, 모동면 지회 사무실)
2.02	영천시농민회 총회(11시, 농협시지부, 회장: 이중기, 사무국장: 김현주): 의성군농민회 총회(10시, 의성읍 농협, 회장: 김선환, 사무국장: 김학천)
2.05	상주시농민회 운영위원회
2.06	북부지역 3차 교육(14시, 상주시농민회 모서면지회 사무실, 30여명 참가)
2.07	전농 상임집행위(16시, 전농 사무실)
2.08	상주 폭설피해대책위 농림부 간담회(14시, 정부종합청사): 대경연합수련회
2.09	경산시농민회 총회(11시, 사무실, 회장: 백철재, 사무국장: 이재호): 청송

	<p>군농민회 총회(11시, 부남농협, 회장: 현시학, 사무국장: 조병도): 범민련 대구·경북연합 신년의 밤(19시, 대구교대 문화관)</p> <p>2.10 도연맹 10차 운영위원회(14시, 농업인회관 회의실): 영천시농민회 운영위원회</p> <p>2.13 안동시농민회 총회(11시, 농협시지부)</p> <p>2.13~14 전농 의장단·회장단 수련회(유성 유스호텔)</p> <p>2.14 영양군농민회 총회(11시, 농협)</p> <p>2.15 고령교육(19시, 농업인회관, 20여명 참가): 대경연합 대의원대회(17시, 경북대 사회대 강당)</p> <p>2.18 전국연합 대의원대회(14시, 중앙대)</p> <p>2.20 안동시농민회 일일чат집</p> <p>2.21 도연맹 10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11시, 경북농업인회관 3층 대강당)</p>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농민대중의 이해와 고통을 해결하고자 농민운동총역량을 결집하여 단일 전국조직으로 결성되어 농민대중의 조직이 되고 농업·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농민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실천하면서 민족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한국사회민주화에 기여
관련사료 (창립선언문, 규약)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자료집
비 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상주시농민회	관리번호	대구·경북-농민단체-03
창립일	1990. 4. 13.	해체시기	현재 활동 중
소속단체/소속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창립배경과 과정			
조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시농민회 조직 구성 시농민회 면지회 분회 - 회의 및 기구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총무, 조직, 홍보선전, 교육, 연대사업부, 문화체육부) 감사회 - 임원 회장 : 1명 부회장 : 2명 감사 : 2-3명 사무국장 : 1명 (1999년 현재) 		
기관지명	"농민세상", "상주농민"		
주요활동가	1~2기(1989~1990)	오정면	
	3기(1991~1991)	권태준	
	4기(1992~1993)	이재환	
	5기(1994~1995)	오정면	
	6기(1996~1997)	최병수	
	7~8기(1998~2000)	황인석	

	9기(2000~2001) 10기(2002~2003)	박종구 안희준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p>◆ 2003년 활동</p> <p>2.14~15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저지, 추곡수매가인하 철회 전국농민대회(서울) 2.22 경북농민대회(10시, 의성장터, 상주 21명 참석) 2.24~27 모서, 내서 한방진료봉사활동(모서초교 체육관, 내서면사무소) 3.10~28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면별 영농발대식(외서, 사벌, 내서, 모동, 모서 진행, 낙동은 교육사업으로 대체) 3.22 반전촛불시위(19시, 상주로터리) 4.07 경북도연맹 기자회견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 방문투쟁(11시, 대구 한나라당사 앞, 30명 참석) 4.1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상주농민대회(13시, 문화회관 앞) 4.28~30 여의도 국회 앞 릴레이농성(15명 참가, 전농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여의도 농성진행) 5.02 상주지역 농민단체 협동조합개혁 투쟁선포식(14시, 시지부 앞) 5.02~05 봄농활(모서, 내서, 화동, 은척, 낙동 등 연세대 학생 60여명 참가) 5.05 전교조 어린이날 행사참가 (10시, 시민운동장) 6.04 상주민주단체협의회(준) 회의(19시, 전교조 사무실) 6.05 외교통상부 DDA 설명회 무산투쟁(09시, 도청, 상주6명 참가) 6.08 여중생 1주기 추모 대구·경북지역 축구대회(경북대, 내서면지회 참가, 우승) 6.13 미군장갑차 피해 여중생 1주기 추모 및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 기념집회(19시, 문화회관 앞) 6.2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총력투쟁(서울 상경투쟁, 고속도로 점거투쟁, 22명 연행, 조사) 6.27 우리농업지키는 2003년 여름농활 시작 6.30 전국민중대회(14시, 서울 여의도, 상주 12명 참가) 7.05 여름농활 해단식(3시, 문화회관 앞) 및 내서농민한마당(5시, 내서중학교) 7.08 농협개혁투쟁 결의대회(16시,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앞) 7.10 포도주산지협의회 관련 상주시장 항의방문(17시, 20여명 참석) 7.12~13 민노당 구미지구당 농활(상주) 7.14 상주시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거부 서약</p> <p>◆ 2002년 활동</p> <p>1.22 상주시농민회 임시총회 3.08 상주시농민회 외서면지회 창립대회</p>	

	<p>3.15 상주시농민회 간부·활동가 수련회 및 회원교육 3.20 쌀값 손실보전 이행을 위한 상주시장 간담회(상주시청, 11시, 이성과로 쌀값 손실보전을 하기로 한 2001년도의 약속을 이행하며 NK비료와 pp 포대로 농가에 도움을 주기로 시장으로부터 재차 약속 받았음.) 3.25~26 WTO 쌀개방 반대 한칠레 FTA 반대 면별 영농발대식(사벌, 내서, 외서, 모동, 모서) 4.19 WTO 쌀개방 반대 한칠레 FTA 반대 면별 영농발대식(사벌, 내서, 외서, 모동, 모서) 4.25 조합장 보수 인상 저지 상주지역 회원농협조합장협의회 간담회(이성과로 조합장들이 현실성 없이 보수를 인상, 혹은 인상 기도했던 것을 저지하고 이미 인상한 보수를 환급하기로 약속받았음) 5.24~26 우리농업지키는 2002년 봄농활(모동, 모서, 내서, 은척, 화동면 진행, 학생 40여명) 6.07 상주시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상주지역의 민주당체들과 함께 진행) 6.28~7.07 우리농업지키는 2002년 여름농활 7.18 김제농민회 교류사업(상주) 8.14~15 8·15 민족통일대회(서울 건국대학교, 20여명 참가) 8.24 우리영농조합법인 총회 8.26~29 한방진료봉사(모서) 8.28 상주농민대회(14시, 상주문화회관 앞) 9.07 수해대책마련 모동면 농민대회(10시, 기반공사) 10.04~06 가을농활(모서-연세대 문과대 15명, 화동-연세대 이과대 명) 10.12~11.13 상주시농민회 장날선전전 및 WTO 반대 상주지역 대책위(준) 주말선전전(농협중앙회 시지부 앞, 서문사거리, 상주시농민회, 여성농민회, 농협노조 참석) 11.13 WTO 쌀개방 저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전국농민대회(서울 여의도) 11.25 한-칠레 FTA 반대 당론 채택 요구 한나라당 상주시지구당 사무실점거 농성 시작(29일까지) 11.30~12.14 WTO 쌀개방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당면 농업현안해결 위한 상주시농민회, 문화회관 앞 천막농성 시작 12.06 당면 농업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상주시장 간담회(15시, 상주시청 회의실) 12.07 미군 장갑차 희생 심미선, 신호순 양 추모와 미군 처벌 촉구 상주시민 촛불시위(18시, 문화회관 앞) 12.27 상주시농민회 정기총회(10시, 사무실)</p>
--	--

	<p>◆2001년 활동</p> <p>3.22 한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영농발대식 및 모 한필지 안심기 선포식(약 60여명 참석)</p> <p>4.09 상주시 농민회 낙동면지회 창립총회(낙동농협, 10시)</p> <p>4.1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반대 농민집회 (주한미상공회의소, 12시)</p> <p>4.23 모서면지회 영농발대식 및 모 한필지 안심기 투쟁 선포식</p> <p>5.07 상주농민회 전·현직 간부토론회(농협시지부,18시)-30여명 참석</p> <p>6.13 시청 한해대책 항의 방문 전개</p> <p>6.29~7.08 여름 농민 학생 연대활동(모서 : 공대7팀, 모서 : 문과대7팀, 내서 : 사회대3팀·서부지역 노동자연합, 은척 : 상대2팀, 사벌 : 법대·신대2팀, 화동 : 이과대3팀, 낙동 : 동연7팀, 함창 : 상주대1팀)</p> <p>7.17~19 남북농민통일대회 행사(금강산)</p> <p>7.12 상주시 14개 농협 방문투쟁</p> <p>8.10 상주시 농민회원 단합대회 및 농민주유소 개업식</p> <p>10.10~11 상주시 농협시지부 농성</p> <p>10.15~21 상주농협 점거농성 -57,760원 합의</p> <p>11.02 경북지역 동시다발 농협시지부 앞 쌀 적재투쟁 전개(약 100여가마 적재)</p> <p>11.05 조합장 간담회(농협 자체매입 가격을 57,760원에 준하여 매입하며, 11월 20일까지 가격을 최종 결정하고 11월 13일 전국농민대회를 농협과 쌀 대책위가 같이 준비하기로 함)</p> <p>11.13 1차 전국농민대회(여의도 고수부지, 13시)</p> <p>11.19 경북지역 2차 적재투쟁(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앞 414포 적재)</p> <p>11.19 한나라당 상주지구당 점거농성</p> <p>11.23 쌀문제해결을 위한 상주시장면담(시민의방, 16시)</p> <p>12.28 상주시농민회 정기총회(농업인회관 2층 대회의실, 14시)</p> <p>◆2000년 활동</p> <p>3.18 상주시농민회 영농발대식 및 시민어울림마당(상주문화회관, 19시 30분, 소리타래, 큰들 문화공연)</p> <p>4.07 16대 총선 상주지역 후보자 초청 정견발표 및 농정개혁 서약식</p> <p>6.30~7.08 여름농활(경북대학생 600여명)</p> <p>7.2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대회</p> <p>9.04 오렌지수입 악덕기업 LG제품 추방 결의대회</p> <p>11.21 전국농민100만총궐기대회(경부선 고속도로 추풍령 김천 구간 점거농성, 차량 400여대 및 그 이상 되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는 농민들의 참여로 2Km나 되는 구간을 8시간여동안 점거)</p>
--	--

	<p>12.02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2차 전국농민대회</p> <p>12.07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농산물 적재 및 농기계반납 상주시농민대회</p> <p>12.25 연대보증 피해 대책을 위한 이상배의원 사무실 점거농성</p>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 농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주화 및 각종 현안문제들을 공적으로 제기하고 해결
관련사료 (창립선언문, 규약)	전농 경북도연맹 자료집, 상주농민
비 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의성군농민회	관리번호	대구·경북-농민단체-04
창립일	1989. 3. 4.	해체시기	현재 활동 중
소속단체/ 소속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대 개방농정으로 인한 농산물수입으로 주요 작물인 사과, 마늘, 고추 등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업정책에 대해 저항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시기에 1988년 고추 현물상환 투쟁이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의성군에서도 활발한 투쟁 전개 - 80년 후반 당시 의성군 지역에서는 고추현물상환투쟁을 통해 자생적인 농민회 활동이 활발. 당시의 의성군에는 가농과 기농도 있었지만 이 때의 대규모 투쟁을 계기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접 농민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자주적 농민운동 조직을 고민하면서 의성군농민회가 단촌, 옥산, 금성 등의 면농민회(서부지역은 기존의 가톨릭농민회 조직 가동)와 함께 1989년 3월 4일 의성 아카데미 극장에서 창립 		
조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성군농민회 조직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농민회 읍면농민회 : 읍, 면에 3개 분회 이상 또는 20명 이상 산재 회원으로 구성 분회 : 5명 이상 회원 - 회의 및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 감사회 상벌위원회 -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장 1명 부회장 3명 운영위원 20명 사무국장 1명 		
기관지명			

	<p>회 장 : 우영식 부회장 : 박승완, 마재하, 황병윤, 김옥하 감 사 : 임상호, 이무구, 김병욱 사무국장 : 강성중 (의성군농민회 창립 당시)</p> <p>회장 : 김선환 조직담당부회장 : 심상득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정책담당부회장 : 김광원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재정담당부회장 : 이재국 (재정조달기획단) 사무국장 총무부, 조사선전, 조직부, 교육부, 연대사업부 (의성군농민회 조직구성 2001년 현재)</p>
주요활동가	<p>군회장 : 김선환, 군부회장 : 신택주, 군부회장 : 정용선, 군부회장 : 오상철 군운영위원 : 김병욱, 군운영위원 : 박영조, 군운영위원 : 김병현, 군운영위원 : 이재국 금촌 회장 : 박무관, 옥산 회장 : 남영우, 점곡 회장 : 정재우, 쌍호 회장 : 김종원 다인 회장 : 김현기, 단밀 회장 : 정규한 군사무국장 : 김상권, 군교육부장 : 김정욱, 군조사부장 : 서갑득, 군선전부장 군연사부장 : 황재윤, 군조직부장 : 김상준, 군총무부장 금촌부회장 : 신택주, 금촌 총무 : 구석해 옥산부회장 : 서영석, 옥산부회장 : 권기만, 옥산사무장 : 김학권, 옥산 조직 : 권영대, 옥산 총무 : 최경호 점곡부회장 : 권세구, 점곡부회장 : 박승명, 점곡사무장 : 남창곤, 점곡 총무 : 박준권 쌍호 총무 : 신현국 다인사무장 : 김찬배, 다인 총무 : 이상섭 단밀 총무 : 이동희, 단밀 선전 : 김병현 (의성군농민회 주요활동가 2003년 현재)</p>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p>- 의성군농민회는 농민들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 주로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인데, 대표적으로 1996년부터 '글쓰기 그림그리기 잔치' 개최. 이후 '가족 어울림한마당', '어린이날 큰잔치'로 이름을 바꾸어오면서 매년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 전교조와 함께 개최. 참가자가 1996년에는 200여명, 1997년 350여명, 2000년 1000여명으로 매년 증가. 그리고 군단위 뿐만 아니라 각 면단위에서도 수지침 강좌, 풍물강습, 재즈댄스 강습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활발히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농 창립당시부터 각 시군농민회에 제안해 온 '풍년기원제 및 영농발대식'을 매년 개최. 영농발대식은 당면 농민문제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농민운동의 대중적 기반 확대 시도. 영농발대식은 1996년 800여명, 2000년 600여명의 규모의 참여. 그 의의는 지역사회의 현안을 제시하고 농촌의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 회복 - 의성군은 집회 참여도가 다른 군농민회에 비해 참여도가 높은 편인데, 특히 지역 주작목이 관련될 때 많은 농민 참여. 예를 들어 의성의 주요 작물은 마늘이기 때문에 마늘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2000년에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투쟁이 전개.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 구분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수매하기로 하였던 것을 한지형 마늘을 주로 재배하는 의성에서 이에 반대하여 몇 달간 투쟁해온 결과 수매가를 인상하여 생산비를 보장받고 최저가격 예시제 시행. 면단위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하였고 다른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마늘문제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면 14개 마을농가가 한지마늘 수매 전면 거부. 마늘투쟁을 통해서 정부의 농업정책의 실태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민의 동참을 끌어내는 계기 마련. '수입마늘 저지 및 의성한지마늘 수매가 인상, 최저가격 예시제 쟁취를 위한 의성범 군민대회'(2000년 8월 7일)에서는 3,000여명 이상이 참가하였고, 뒤이은 경북농민대회에는 5,000여명이 참가 - 의성군농민회에서는 연대사업으로 매년 계절별로 농촌활동을 대학교 학생회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고, '양심수 후원', '민중대회' 등의 제 사회운동 단체와의 연대활동도 활발히 진행. 특히 학생운동조직인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관련해 한총련 대의원 수배자 공개농활을 전개한 바 있고 지역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대 - 군단위 농민회로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 1997년에는 축협대의원 해외연수문제로 항의방문을 하였으며, 2000년 '군의회 의원의 위유성 해외연수 경비 환원'문제를 제기하여 금액의 30%를 환수하여 불우이웃돕기 전개. 그 외에도 '구천면 구미 경계선 쓰레기 소각, 매립장 문제'(97년), '삼경화학 유기질 비료 공정 확인'(98년), '양평 양돈단지 반대시위'(98년) 등 지역환경 등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현재 많은 시민운동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농민회는 농민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 즉 지역사회 민주화와 환경운동까지도 지역에서 담당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주화 및 각종 현안문제들을 공적으로 제기하고 해결
관련사료 (창립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자료집 - 전농 의성군 농민회, 《9차 정기총회》 자료집, 1997. 2. 3, 의성군농민회

문. 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차 정기총회》 자료집, 1998. 1. 24, 의성군농민회 - 《11차 정기총회》 자료집, 1999. 1. 27, 의성군농민회 - 《12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0. 1. 7, 의성군농민회 - 《13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1. 2. 2, 의성군농민회 - 의성군 농민회, 《의성농민》 자료집, 2000. 1, 의성군농민회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세정, 농민운동조직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1

4) 대구·경북지역 주요 농민운동 사건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안동농민회 사건(일명 오원춘 사건)		관리번호	대구·경북-농민사건-01
위치	문헌상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 1동 585번지		
	현주소	상동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p>- 안동농민회 사건은 가톨릭농민회와 교회의 적극적인 농민운동이 정부, 사법부, 언론에 의해서 편파, 왜곡된 사건으로 극히 모순된 유신체제의 상황을 증명하였고 동시에 한 농민의 인권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한 농민인권보호의 중요한 사건</p> <p>- 농민운동 차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유신체제의 극심한 억압구조에서도 교회가 일치하여 결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며, 가톨릭교회와 유신정권과의 대립이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사례</p> <p>- 특히 안동농민회 사건과 관련한 전국 가톨릭교회의 일치된 투쟁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대사회운동 중 가장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유신독재의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으로 그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짐</p>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79. 5. 5.	사건 종료일	1979. 12. 8.
	사건 관련자 / 관련 단체	정호경(구속기소중,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지도신부), 함세웅(재구속, 한강본당 주임), 최병욱(구속, 가농 전국회장), 정재돈(구속기소중, 안동가농 총무), 서경원(구속, 가농 광주교구), 정병은(구류처분, 가농 광주교구), 송창기(구류처분, 가농 청주교구), 김성순(구류처분, 대구교구), 장명숙(구류처분, 대구교구 JOC), 김석호(구류처분, 마산교구), 이유인(구류처분, 안동교구), 여지연(구류처분, 대구교구), 주예희(구류처분, 원주교구), 김병로(구류처분, 안동교구), 박수자(구류처분, 마산교구), 전성일(구류처분), 김창식(구류처분), 유옥진(벌금 10,000원), 장성규(구류처분, 안동교구)		
	법적 상태	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사건배경

-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저농산물가격정책으로 증대되지 않는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신품종 강제정작을 추진. 이에 적극적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해온 가톨릭농민회는 쌀생산비 보장운동과 농업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획일적인 영농행정에 대응.
- 오원춘 사건은 이러한 가톨릭농민회의 활동과 정부 및 농협간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출된 사건. 오원춘(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 1동 585번지)은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동해지역 이사로 활동하고 있던 중 특히 농민회 소식지 「과종」에 게재되었던 바와 같이 「감자피해보상운동」에 앞장 섰던 농민.
- 영양군에서는 「78년 앞담배 후작 등 유희농지 활용 극대화로 농가소득 증대」라는 구호 아래 가을 감자 「시마바라」를 50kg 1포당 8,000원으로 군내 5개면에 걸쳐 적극 권장했는데 종자가 거짓인지, 불량인지 재배농가의 80% 이상이 씩이 트지 않아 폐농.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별 보상대책이 없자, 청기 분회원이 중심이 되어 당국에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1978년 10월 5일 「청기 감자 피해보상대책위원회」(청기면 청기동, 정족동 34농가)를 구성, 한 달간에 걸쳐 피해실태조사를 완료(34농가 총피해액 780만원)하고, 군수·군농협장에 피해보상을 두 차례 서면 건의했으나 “1979년 6월까지 시험장의 종자 감정 결과를 기다려보라”는 무성의한 답변(1979.1.9 매일신문 보도)을 하더니, 나중에 1월 23일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들이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문제가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자, 바로 피해농민을 우롱하는 형편없는 대책안을 내놓고 “만족하고 이익을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가는 등 관과 농협의 각종 방해와 회유 속에서 비회원 농민들은 중도에 포기했으나 회원농민들의 끈질긴 활동과 안동교구사제단의 지원으로 생각보다 빨리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음
- 피해액 보상 후 1979년 5월 5일 이 보상 활동에 앞장섰던 청기분회장 오원춘이 행방불명되었는데, 20일이 지난 후 안동교구가 오원춘이 납치, 감금, 테러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안동교구농민회사건이 불거짐

◆사건내용

- 납치되기 전 1979년 4월 28일 이웃집을 통해 안동에서 “5월 5일 만나러 들어갈테니 집에 있으라”는 전화내용을 전해 받음. 오원춘은 농민회 안동연합회 회원으로 추측
- 그 후 5월 4일 다시 영양에서 같은 내용의 전화가 오자, 얼마 전부터 영양경찰서 정보과 장모 계장, 오모 형사 등이 “오형, 조심하라”는 말을 유난히 많이 하던 점과, 청기 지서와 천주교 청기공소회장을 통해 오원춘 동태확인 전화가 경찰서에서 계속 왔다는 점, 더욱이 5월 1일 영양읍 승격 기념 행사장에서 정보과 오모 형사로부터 “5월 5일 집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린이날이라 영양 청년 회의소 주최 「초·중학생 글짓기 대회」 심사관계로 영양에 나와야 한다.”고 답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의 일로 미루어 좀 불안해졌음.

- 그렇지만 맡은 일을 하기 위해 5월 5일(이 글짓기 대회는 후에 5월 8일로 연기되었음) 아침 떠날 때 부인에게 “혹 무슨 일이 있거든 교구청과 본당에 연락하라” 해놓고 청기 정류소에 나가니 지서 순경이 나와 있었지만 별 생각 없이 영양행 버스를 타고 12시경 버스 종점에서 내리자, 정체불명의 사나이 두 명이 “안동에서 연락했던 사람이다”, “안동에 함께 가자”하여 연락할 겨를도 없이 검은 세단에 납치되어 오후 2시경 안동 도착, 해동식당에서 점심을 먹고는 교구청에 전화 연락하려고 하니 그들 중 한사람이 쫓아와 전화기를 뺏으며 “내가 먼저 하자”고 어디엔가 내용 불상의 전화를 하더니 “시간 없다, 빨리 가자”면서 다시 세단에 타게 하고 내쳐 포항까지 직행
- 시내를 빠져 비포장도로를 지나 포항제철이 가까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는, 푸른 빛이 도는 잿빛 건물로 들어감(17:00경)
- 납치해 온 두 사람은 탄 방으로 가고 신사복을 입은 다른 두 젊은 사람이 들어와 “왜 왔어? 체제에 도전하는 놈은 그냥 놔 둘 수 없다”라고 하기에 “내가 무슨 체제에 반항을 했느냐?”고 반문하자, “이 촌놈의 새끼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까불고 다녀!”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책상 위의 두꺼운 책을 집어던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먹과 구둑발, 각목 등으로 어깨와 허리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두 시간 가량 개패듯 구타하여 수십 차례 쓰러지고 짓밟히고 또 맞아서 멍들어 부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부인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잠잘 때 신음을 하고 허리가 몹시 아프며 왼쪽 어깨는 내려앉는 듯 아프다고 함)
- 그곳에서 나올 때도 납치했던 두 사람이 부축하여 세단차에 올랐는데 그들이 차중에서 말하기를 “밖에 나가서 절대 발설하지 말라, 얘기하면 더 큰 곤욕 치를 줄 알아라”고 공갈하였고, 울분과 공포에서 비감, 허탈해진 오원춘에게 울릉도행 배 매표소 부근 한양여관에서 밤 2시까지 소주를 먹이며 “농민회 임원이 몇 명이나? 총무는 누구냐?” 또 “함평 고구마피해보상사례, 청기 감자피해보상사례 같은 것들을 자주 떠들어 퍼뜨리면 좋지 않다”, “잘 협조해서 등글등글 사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를 하기에 오원춘이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려면 그들은 금방 인상이 달라지는 등 협박을 하고는,
- 5월 6일 아침 오원춘이 완강하게 “농사일이 바쁘니 집에 가야겠다”고 나서자 강제로 끌며 울릉도행 「한일호」에 태웠고 남들과는 달리 입검이나 몸수색도 하지 않음. 둘 중 한사람은 출발 10분전쯤 “오형 수양 잘하고 오시오”하며 내렸고, 좀 나이든 사람과 울릉도까지 갔는데 상처투성이의 오원춘에게 돈 5천원을 꺼내 놓고는 화장실 가는 것처럼 사라짐
- 오원춘은 태풍으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하소연할 곳도 없는데다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멀리서 감시를 당함. 몇 차례 탈출을 기도했으나 그때마다 부딪기에만 가면 나타나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있는게 아니다”, “독도에 가자”하여 죽음과 같은 불안과 공포에서 꿈쩍 못하도록 함
- 이후도 오원춘은 돈도 떨어져 잘 곳이 없어서 상여를 넣어 두는 헛간에서도

갔고, 배고프면 식당의 일을 도와주면서 얻어먹음

- 5월 18일 부딪가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공포와 불안이 겹친 끝에 실의에 빠진 것 같이 보였던지 “많이 달라졌다”며 어깨를 두들기고 “농사일이 바쁘테니 내일 돌아가자”고 함
- 5월 19일 아침 「한일호」를 타고 포항에 도착. “집에 가서 일이나 잘 하시오. 얼마간 집에만 있는게 좋을 거요”라는 위협을 받으면서 끝까지 영덕을 거쳐 영양으로 되돌아옴
- 5월 21일 영양에 도착하자마자 성당에 가다가 정보과 오모 형사를 만났을 때 어디갔다 오냐고 물어 오원춘이 “몰라서 묻느냐?”고 하자 “난 니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안다. 안동 아니면 영덕 있었지”라고 함. 그래서 울릉도에 갔었다고만 얘기함
- 6월 13일 오원춘이 지난 일을 얘기하려고 영양본당 신부님께 처음으로 나간 사이에 낮에 지서에서 1명이 왔다고 갔고 밤에 귀가하자 초상집에 같이 가자는 핑계로 또 3명이 다녀갔기에 가족들까지 불안해함. 오원춘은 14:00-15:00경 정회욱 신부에게 찾아와 공포와 쫓기는 기분에서 납치사실 보고
- 6월 16일 견진 성사차 영양본당에 오신 두봉 주교님께 오원춘 납치사실을 정회욱 신부가 보고
- 6월 17일 16:30경, 걱정하시던 정회욱 본당 신부는 오원춘 사건을 영양 경찰서 정보계장에게 항의했으나 개인적이고 여자문제일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으나, 경찰들은 애써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임. 20:30 영양 경찰서 정보과장 노경복씨를 만나 납치사실을 확인코자 했으나 모른다고 대답
- 6월 18일 14:00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총무 정재돈이 정호경 신부 지시로 진상조사차 영양군 청기에 들어감(오원춘 부재중으로 그냥 나옴)
- 6월 23일 15:00 안동발 청량리행 열차에서 정재돈 총무와 오원춘이 만나 제1차 납치사실 청취
- 6월 27일 경북 의성군 안계 천주교회에서 방인 사제 회의 때 정회욱 신부 납치사건 보고. 이에 따라 신부님들 대책위원회 구성(정회욱, 김기, 류강하, 정호경 신부). 여기서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 1) 이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에 대한 훼손이 될 경우 조사 중단, 2) 과장이나 허위가 내포된 사실이 밝혀지면 조사를 중단한다, 3) 모두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문제 삼지 않는다.
- 6월 28일 18:00 정회욱 신부가 서장과 대화했으나 “모르는 사실”이라는 대답을 들음
- 6월 30일 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협의회 권종대 회장과 정재돈 총무가 청기를 방문, 오원춘으로부터 사실 확인(여기서 오원춘은 1차 조사시 발설하지 않았던 포항 잿빛 건물에서의 폭행 사실을 새롭게 이야기함)
- 7월 4일 정회욱 신부 본명 축일날 제2차 납치사건 대책위원회에서, 제1, 2차 조사결과를 기초로 오원춘에게 사실 확인(양심선언문 작성)

	<p>- 7월 17일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사제 연수회에서 사건내용에 관하여 류강하 신부가 보고했고, 연수회 후 발표된 성명서 제5항에서 오원춘의 납치사실에 대한 항의가 있었음</p> <p>- 7월 18일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농민회 안동교구 협의회, 안동교구 사제단은 영양 경찰서장, 청지 지서장에게 오원춘 납치사건에 대한 답변요구서 발송</p> <p>-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경북 도경은 안동교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농민운동 탄압이라는 왜곡된 성명서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신부 및 농민회 간부를 구속하였고 대통령의 특별조사령, 농민회와 교회에 대한 용공시비가 일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확산</p> <p>- 8월 6일 가톨릭 안동교구에서 신부 120명, 신도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도회를 열고 사제단과 가톨릭 회원 80여명이 20일간 항의농성을 벌이는 한편 8일간의 단식기도, 가두 촛불시위, 공정재판요구 및 집단방청활동 등을 전개하였고, 명동성당기도회에 전국 14개 교구 700여명의 사제들이 참석, 각 교구에서도 수많은 기도회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등 군부독재정권과 천주교회의 대결구도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 양상</p> <p>◆사건일지</p> <p>5.5~21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원 오원춘 납치</p> <p>5. 5 농민들의 감자피해보상문제에 앞장섰던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의 오원춘씨 실종. 오원춘씨의 납치 여부를 둘러싸고 당국과 가톨릭이 맞서 정치문제로 확대</p> <p>5.13 영양본당 정희욱 주임 신부 야외미사 때 오원춘의 불참사실 확인</p> <p>6.13 오원춘 납치사실 정희욱 신부에게 보고.</p> <p>6.16 정희욱 신부가 전진성사차 영양본당에 온 두봉 주교에게 오원춘 납치사실 보고</p> <p>6.17 정희욱 신부가 영양경찰서 정보계장에게 항의, 경찰은 개인적이고 여자문제로 오원춘이 울릉도에 갔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애써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 취함. 정희욱 신부는 영양경찰서 정보과장 노경복을 만나 납치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모른다는 대답 들음</p> <p>6.18 가톨릭안계 천주교회에서 방인사제 회의에 정희욱 신부는 오원춘의 납치사실보고, 사제단 대책위원회 구성(정호경, 류강하, 정희욱, 김기 신부)</p> <p>6.28 정희욱 신부 영양경찰서장과 대화, 경찰서장 모르는 사실이라는 대답을 함.</p> <p>6.30 오원춘 사건 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의 권종대 회장과 정재돈 총무가 청기 방문. 오원춘으로부터 사실 확인(오원춘은 1차 조사시 발설하지 않았던 포항 잿빛 건물에서의 폭행 사실을 새롭게 제기)</p> <p>7. 4 정희욱 신부 본명 축일날 축하 후 납치사건대책위원회에서 제1, 2차</p>
--	---

	<p>조사결과를 기초로 오원춘에게 사실 확인</p> <p>7. 5 오원춘 제1차 양심선언 작성. 5월 5일 납치로 울릉도에 격리당했음이 사실이라고 밝힘. 가톨릭 안동교구의 부당한 연행에 대한 항의와 시위가 이루어짐</p> <p>7.10 김영종 청기공소 회장 정희욱 신부에게 오원춘 사건을 여자문제라는 낭설을 퍼뜨렸다고 함</p> <p>7.16 정희욱 신부 오원춘에게 여자관계 문제를 확인했을 때 오원춘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말함</p> <p>7.17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사제연수회에서 사건내용에 관하여 류강하 신부가 보고, 연수회 후 발표된 성명서 제5항에서 오원춘 납치사실에 대한 답변요구서 발송</p> <p>7.18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안동교구 사제단은 영양경찰서장, 청기지사에게 오원춘 납치사건에 대한 답변요구서 발송</p> <p>7.19 새벽, 신원은 밝히지 않은 남자 2명이 청송군 부남면에 거주하는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부회장 배용진을 찾아와 오원춘을 찾기 시작. 오후 5시 중앙정보부 안동출장소 박갑규 소장 교구청으로 정호경 신부를 찾아옴. 김영종(영양성당 청기 공소회장), 권옥현(오원춘 부인), 오정광(면사무소 직원), 청기정류소 상점주인, 공정숙(영양읍 여정다방 주인 딸)을 연행 조사</p> <p>7.20 김영종, 오정광, 청기정류소 상점주인, 공정숙 안동으로 연행. 11시경 오원춘의 진술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중앙정보부 안동출장소 박갑규 소장과 영양경찰서장, 경북도경찰국 정보1과장 오달호 총경, 성명 미상의 대구 중앙정보부 간부 청기공소 김영종 회장을 대동, 교구청으로 와서 오원춘과 질의응답을 1시 30분까지 함</p> <p>7.21 경찰측은 현장조사차 포항까지 오원춘의 동행을 요구. 이에 류강하 신부와 함께 포항까지 감</p> <p>7.23 경상북도 경찰국장, 안동교구 교구장 두봉 주교에게 대책위원 신부들과 오원춘이 경찰관 입회없이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오원춘의 자백 내용의 확인을 하겠다는 전화 통보</p> <p>7.24 오원춘과 대책위원회 신부들 경찰서 방문. 오원춘의 낙서 교구청으로 전달됨(육지에 가면 진실을 말하리)</p> <p>7.25 가톨릭 안동교구는 오원춘씨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행방불명되었다고 발표. 권종대 회장, 정재돈 총무 예천본당 관할 대죽공소에서 농민사목 교육중 사복경찰관 6명에 의해 강제 연행</p> <p>7.27 안동경찰서 정보과장 구종태 경감의 지휘 아래 30여명의 사복경찰 교구청 난입사건 발생. 정호경 신부 강제 연행. 사제단 대책회의 개최</p>
--	---

7.30	안동 목성동 성당에서 제1차 기도회 열림. 기도회 중 사건경위 발표. 경찰관들의 교구청 난입 사건, 오원춘, 권종대, 정재돈과 정호경 신부의 강제 연행, 불법 감금에 대한 교구장의 항의문을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 오원춘씨 제2의 양심선언을 통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호소
7.31	권종대 회장 교구청으로 귀환. 오원춘씨의 실종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서라는 발표와 양심선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 오원춘(농민), 정호경(안동가농 지도신부), 정재돈(안동가농 총무), 긴급조치 9호, 오원춘(징. 자2), 정호경(구속정지), 정재돈(구속정지)
8. 6	안동교구 주관 전국 기도회 개최, 항의농성 시작(8월 22일까지). 안동에서 가톨릭 신부·신도 900여명 기도회 후 가두데모(김수환 추기경 및 전국사제단 신부 120여명, 가톨릭농민회원 300여명, 평신도 400여명 등 900여명). 안동 목성동 본당성당서 오원춘씨 사건 기도회 갖고 밤 11시부터 가두데모에 돌입. 피켓을 든 신부들은 선두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종교탄압 중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안동 시내 중심가를 누빔. 안동경찰서 앞에서 100여명의 경찰과 충돌하여 연좌데모 벌임. 이 사건으로 가톨릭 농민회원 7명 구류처분. 이날 김수환 추기경은 '독재정권은 어느 나라고 망한다', '이 정부가 권력으로 내려 누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총화를 해치는 일이다'라고 강론
8. 9	원주교구, 청주교구의 기도회 개최
8.10	경상북도 경찰국은 오원춘의 납치설은 허위조작된 것이라고 밝힘
8.14	검찰은 오원춘을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구속
8.15	대구지검 오원춘씨 사건 발표. 오원춘이 '납치, 감금, 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발표
8.20	정의평화위원회주최 전국기도회개최(명동성당). 인천, 수원, 대전, 광주, 전주, 마산 등 전국적으로 기도회가 확산됨
8.22	대구교도소 소장실에서 당국이 발표한 언론계, 종교계, 학계, 지방법조계, 외신 기자 등과 이건호 변호사 오원춘과 회견. 안동과 명동성당서 오원춘 사건 항의농성 중이던 신부, 농민회원들 치안국장의 불연행 약속받고 농성해제
8.23	텔레비전 3국 공동 제작한 오원춘 사건 보도 특집 방영
8.25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서 가톨릭 안동교구연합회의 정호경 지도신부와 정재돈 총무 긴급조치 9호로 구속
9. 3	제1회 공판
9.18	이돈명, 황인철 변호사 오원춘 접견
9.24	가톨릭농민회 경북지구 여진연은 오원춘 사건 유인물 배포혐의로 구류 20일

	9.25 제2회 공판		
	9.30 9월 25일 오원춘 재판에서 방청권 발부에 항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항의. 최병욱(가톨릭농민회 전국연합회 회장), 주애희, 박순자 등 7명 중 최병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법정모욕혐의로 구속, 그의 전원 구류 5일		
	10. 8 제3회 공판		
	10.14 가톨릭 안동교구사제단 '오원춘 사건 보고서' 발표 '경찰측 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조작과정이 폭로되었음을 밝히고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12. 8 오원춘 사건 관련 구속자 석방		
	정부의 대응	정부의 폭력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편파, 왜곡된 사건	
	민주화 운동에 미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은 농민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 사법부, 언론에 의해서 편파, 왜곡된 사건으로서 모순된 유신체제의 상황을 증명하는 동시에 한 농민의 인권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한 '농민인권보호'의 중요한 사건 - 유신체제의 극심한 억압구조에서도 교회가 일치하여 결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가톨릭교회와 유신정권과의 대립이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정치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사례 	
현실 상태	관리 주체	대구사회연구소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사진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문헌 - 한국기독교사학회문헌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983, p. 367, pp. 372-376, p. 378, pp. 384-385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IV, V」, 1987, pp. 1748-1749, pp. 1998-1999, p. 2001 -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 pp. 285-364 - 천주교 안동교구, 「안동교구사 자료 제3집 교구농민회」, pp. 93-14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자료 - 조선일보 1979년 10월 16일 - 오원춘 피고에 2년 선고 - 조선일보 1979년 10월 17일 - 긴급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 선고 받은 오원춘씨 항소포기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소값 피해 보상운동(소몰이 시위)		관리번호	대구·경북-농민사건-02
위치	문헌상			
	현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값 피해 보상운동은 종래와 같은 소수정에 중심에서 점차 일반 농민대중이 참여하는, 그리고 생산조직과 연대하는 투쟁으로 발전 - 이 해 9월의 '전국농민대회'(전주)와 '소값 피해보상 투쟁'(서울)으로 결산된 이 싸움은 새로운 자주적 농민운동으로의 전환을 의미 - 이 투쟁은 생활현장에서의 대중투쟁, 농민회와 생산조직의 연대투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해에 기초한 농민의 정치투쟁방법 제시란 점에서 농민운동사에 중요한 의의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85. 7. 21.	사건 종료일	1985. 7. 21. 오후 4시경
	사건 관련자 / 관련 단체	<p>안동가톨릭농민회, 의성군 다인협의회 풍양, 쌍호 및 월소분회 다인지역 : 전맹진, 김홍섭, 오해수, 이재한, 오광호, 오일호, 오천호 의성경찰서 강제연행 풍양지역 : 전병철, 정원해, 전영대, 김병원, 안취문, 안영성 예천경찰서 강제연행 길 마을 : 송선교, 송학수 상주경찰서 강제연행 청기지역 : 이재원, 오이창, 오원춘 청기지서에서 조사받음 쌍호지역 : 9명의 명단제시 조사강요 정세환이 간단히 써주고 그 외는 불응. 며칠 뒤 진상국이 집에서 조서 작성당함. 연합회 : 배용진 회장이 청송 본가에서 권중대 총무가 농민회관에서 조사 받음.</p>		
	법적 상태	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p>◆사건배경 - 소사육 농가의 피해는 1984년 연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피해의 주원인은 외국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외국소의 과다 도입. 소사육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였음을 깨달은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 문제는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전국적인 운동 정책 과제로 선택. '소값 피해 보상 및 외국 농축산'</p>		

<p>물 수입저지 운동'은 1984년 6월 25일 한국가톨릭농민회 산하 제천지역협의회가 수입소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천군수에게 보내고, 같은 해 7월 15일에는 공개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작. 그 후 이 운동은 1985년 경남 고성외 '소몰이 시위'를 매개로 하여 전국으로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가톨릭농민회는 처음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함. 다만 1985년 7월 16일 다인성당에서 다인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지도신부, 연합회 총무 동참)에서 소값 피해 보상 운동을 위한 적극적 행동의 필요성과 적기성을 공동 인식하고 이 지역 실정과 조직의 역량에 맞게 활동을 전개할 것을 합의한 뒤 바로 이어 근방에서 우시장이 제일 큰 안계우시장에서 7월 21일 거사토록 결정하고, 이 일은 안계, 쌍호지역 회원과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 그 후 쌍호, 월소분회 방문 함께 할 것을 합의하고 안계 정일 신부에게 동의를 얻음 <p>◆사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경운기, 깃발, 현수막 등을 준비, 당일 우시장에 회원이 집결하여 성명서 채택, 시내시위, 안계성당에서 미사를 지내도록 계획. 그런데 계획된 하루 전날 일 7월 20일부터 경찰이 이 계획을 어렵듯이 알고 저지하기 시작. 소, 경운기의 안계 우시장 사전 집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당일 아침 8시까지 다인성당에 동원 가능한 소와 경운기를 갖고 전회원이 집결하도록 함. 이렇게 모이는데도 풍양쪽 회원은 도중에 경찰의 거센 저지를 받고 소를 가져오지 못하고 경운기마저 2대만 도착. 경운기 보호대를 '댄 경운기에 소를 싣고 9시경 회원들이 출발. 다인 시내 중앙인 다인지서 앞 다리목에서 경찰 30여명이 교통차단용 바리케이트를 치고 방어. - 대표는 소를 싣고 평화적으로 가겠다고 하고 길을 비킬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여 그러면 강제로 가겠다고 통보하고, 소를 태운 경운기를 앞세우고 남녀회원이 바리케이드로 돌진, 싸움 끝에 저지를 헤치고 나감. 재차 대열을 정비하면서 곧장 달렸으나 다인 시내를 빠져나가기 전 작은 다리목을 40~50여명의 경찰이 이중 바리케이드를 치고 방어막 설치. 앞에서 전속력으로 바리케이드에 돌격과 함께 회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함께 달라붙었으나, 경찰 병력은 많고, 저지가 완강하여 뚫기 어려웠음. 그러나 경운기의 몇 번의 돌진, 함성을 지르는 모두의 합친 힘으로 밀면서, 그 사이 깃발을 달려고 준비한 장대를 휘두르기도 하고 밀치락 뒤치락하는 난투극을 벌리다가 마침내 저지선을 헤치고 나감 - 다인 시내를 빠져나오면서 비포장으로 굴곡이 심한 도로를 11대의 경운기와 1대의 트럭에 나누어 타고 노래를 부르며 대열을 정비하여 달리다가 다인, 안계 중간 지점쯤에서 미리 준비한 "소값 피해 보상하라", "외국농산물수입 중단하라", "농가부채 탕감하라" 등의 10여개의 대형 깃발과 "소값 똥값", "농가부채 탕감", "수입중단" 등의 구호가 쓰인 현수막을 전 경운기에 부착, 같은 내용이

	<p>쓰인 소 덕시기를 소 잔등에 씌우고, 참가자 모두는 “소값 피해 보상하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30여리의 행진이 계속 진행. 다인 안계간 30여리를 출발부터 2시간의 신고 끝에 11시경에 안계 시내에 들어가려니 경찰 저지선은 없었고 마중하는 장꾼들이 시내 입구를 메우고 있었음. 서서히 행진하여 들어가 안계 오거리 가운데서 잠시 노래와 구호를 외치다 다시 행진, 사람이 가장 많은 안계 시장 입구에 도착, 다시 노래와 구호를 외침. 경찰의 소극적인 제지를 뚫고 계속 풍물을 치고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우시장에 도착 소를 실은 경운기는 우시장 입구에 집합해 놓고 모두 우시장에 돌입. 성명서를 낭독하고 박수로 채택한 뒤 연합회장이 선창으로 농민운동만세 삼창을 힘차게 부르고 나와 다시 소를 실은 경운기를 앞세우고 우시장 골목을 나와 국도를 향하려하는데 데모저지를 위한 완전 무장한 전투경찰이 앞을 막아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앞으로 나가 다시 시장입구를 지나 오거리를 오면서 풍물을 치고 노래 부르고 구호 제창. 마지막으로 오거리에 와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친 뒤 안계 시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잠시라도 생업에 지장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농민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호소하는 동시에 전투경찰을 위로한 뒤 오후 4시경에 완전 해산</p>		
정부의 대응	경찰병력 동원으로 폭력진압		
민주화 운동에 미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값 피해 보상운동에서 안동가톨릭농민회는 분명한 피해와 시기적절한 문제를 가지고 농민운동을 선도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과시하였고, 지역운동의 중요성과 농민의 역동성 확인 - 농민운동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생각해왔던 여성농민들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는 계기 -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에 대한 저항 		
현 실태	관리 주체	대구사회연구소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사진			
관련자료	천주교안동교구, 『안동교구사 자료 제3집 교구 농민회』, pp. 176-186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농지개량조합 조합비(수세) 현물납부 투쟁		관리번호 대구·경북-농민사건-03
위치	문헌상		
	현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치하 때부터 농민들에게는 국가의 세금처럼 무섭고 내지 않으면 강제차압 까지도 당할 정도로 부담이 많고 겹나는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 속칭 수세거 부투쟁을 통해 주체적으로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 투쟁 전개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85.12.08	사건 종료일 1985.12.13
	사건 관련자/관련단체	다인지역 협의회 산하 대농분회 류강하 신부 오상백 외 대농분회 회원	
	법적 상태	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조합이라고도 불리는 농지개량조합은 조합이면서도 국가기관처럼 행세를 하고 과도한 조합비를 부과하여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삼 - 1985년 12월 8일 가톨릭농민회 다인지역 협의회 산하 대농분회 월례회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를 현물로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 ◆사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회원들은 어려운 농민들의 대변자 노릇을 하지 못하는 수리조합에 대하여 가톨릭농민회 대농분회 이름으로 여러 차례 수세를 현물로 받아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묵살 당하자 수리조합에 수세를 현물로 자진 납부하는 투쟁을 결정 - 12월 11일 아침 가톨릭농민회 다인지역 협의회 산하 대농분회원들은 각자의 수세를 계산하여 나락을 경운기에 싣고 수리조합으로 운반하였는데 전부 23가마 - 수리조합에 납부한 수세영수증 요구하였으나 조합측은 현물수세 거부 - 영수증 미수령 후 나락을 수리조합 현관에 적재 - 당일 밤 수리조합 직원들에 의해 농민회원 집집마다 나락가마니 재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차례 반송과 재반송을 거듭한 끝에 조합측은 다인장터 삼거리와 다인종고 가는 길에 나락을 유기 - 농민회 측의 회의 결과 나락을 유실물로 간주 오상백의 경운기에 나락을 싣고 다인지서에 신고 - 다인지서 김순경이 폭력으로 제지 - 지서순경들과 농민회원들의 대처 - 다인협의회는 안동연합회에 사건을 보고 - 안동연합회 진상조사, 의성 경찰서장에게 강력 항의, 폭행경찰의 문책 요구 - 사건이 확대되자 경북 도경국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나아와 다인성당에서 류강하 신부에게 사과 		
	정부의 대응	- 농민회원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		
	민주화 운동에 미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민들의 생존권 투쟁 -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에 대한 저항 		
현실 태	관리 주체	대구사회연구소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사진				
관련자료				
기타				
		천주교안동교구, 『안동교구사 자료 제3집 교구 농민회』, p. 187-189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농가부채탕감대회		관리번호	대구·경북-농민사건-04
위치	문헌상			
	현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당시 농민운동의 주된 구호와 투쟁방향은 '농가부채 탕감', '외국 농축산물 수입 중단', '민주농정 쟁취', 그리고 '군부독재 타도'에 주력 - 이러한 구호는 종전의 운동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른바, 이 시기 농민운동은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독재정권과 외세에 맞서는 '민중의 생존권적 투쟁'의 성격 - 소극적인 시위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거리투쟁으로의 방향전환 -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농민들 스스로의 자주적 해결 의지 천명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86.3.30.	사건 종료일	1986.4.16.
	사건 관련자/관련단체	안동가톨릭농민회, 영양협의회, 풍천협의회		
	법적 상태	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배경 - 1986년에 이르러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저곡가 정책과 한미통상협상이 결과한 양담배 수입 때문에 담배생산 농가의 위협이 가중. - 이미 기록적인 농가부채(호당 평균 400만원)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었던 경북 지역 농민들이 벌인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와 농가부채 해결', '농민생존권과 민주헌법 쟁취' 투쟁. - 농민운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가톨릭농민회는 각 지구별로 지도신부단을 결성하고, 곧바로 실천 활동에 필요한 교육사업과 농가부채 피해 실태조사서 작성에 착수 - 이후 안동군 풍천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구담 백사장에서 약 500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가부채 탕감 농민대회' 개최 		

		<p>◆사건내용</p> <p>- 1986년 4월 16일 오후 1시 30분 안동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국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회장 배용진)와 천주교 안동교구 농가부채탕감 대책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약 700명의 농민과 40 여 명의 신부, 70여명의 수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 및 농가부채탕감 농민대회' 개최</p> <p>- 이날 행사는 1부 미사, 2부 농가부채탕감대회, 3부 가두시위 순으로 진행. 강당에서의 대회를 모두 마친 농민들과 신부·수녀들은 4시부터 주장이 담긴 50 여개의 만장의 앞세우고 징과 팽과리를 치며 거리로 나서 적극적인 농민주장 표명에 나섬. 1시간여 동안 농민들은 군부독재퇴진, 민주헌법쟁취, 외국 농·축산물 수입 중단, 소값 피해 보상 등을 외치면서 농수산부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행정권은 오히려 삼엄한 경찰력으로 이들의 요구를 외면.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최루탄과 폭력으로 지지하는 수천의 경찰 저지선을 뚫고 안동역까지 진출, 6시 30분까지 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노약자와 수명의 수녀들이 부상당하거나 졸도했고, 20여 명이 연행되었다가 풀려나옴. 이런 속에서 행정권은 계속 농민들의 주장을 여전히 묵살하자 700여 농민들은 다시 안동 문화회관으로 돌아와 앞으로 계속 적극적인 싸움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갖고 해산</p> <p>◆사건일지</p> <p>3.30 영양 협의회 창립 및 농가부채탕감대회(영양성당, 200명)</p> <p>4.13 풍천 협의회 농가부채탕감대회(구담백사장, 500명)</p> <p>4.16 농민·노동자를 위한 기도회 및 농가부채탕감농민대회(안동 문화회관, 700명)후 안동역까지 시위. 수녀의 시위참여와 최루탄 발사</p>	
정부의 대응	강력한 경찰병력 투입을 통한 폭력진압과 강제연행 강행		
민주화 운동에 미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운동의 중요성과 농민의 자주적 역동성 확인 -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에 대한 저항 		
현실 태	관리 주체	대구사회연구소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사진			
관련자료	천주교안동교구, 『안동교구사 자료 제3집 교구 농민회』, pp. 190-191, p. 528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운동		관리번호 대구·경북-농민사건-05
위치	문현상		
	현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가톨릭농민회가 기존의 조직형태를 탈피하여 '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를 위한 기구'(1986년 8월 29일에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안동농민회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를 결성하여 투쟁 - 이러한 투쟁을 통해 지역농민들이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보다 철저히 인식 - 농민들의 자주성과 고양된 정치의식의 발현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86. 8.29.	사건 종료일 1986. 9. 3.
	사건 관련자/관련단체	의성군 안계, 안동군 풍천, 영양	
	법적 상태	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p>◆사건내용</p> <p>- 1986년 9월 1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동군 풍천면, 영양읍 등에서 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실천 대회 개최</p> <p>- 이 대회에서 150여명의 농민들이 경운기를 앞세우고 가두시위를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군부독재 퇴진', '민주헌법쟁취', '지방자치제 실현' 등의 구호는 참여한 농민들의 자신감 및 고양된 정치의식을 보여줌</p> <p>- 이 운동을 통하여 안동가톨릭농민회는 조직 확대라는 부수적인 성과 획득</p> <p>◆사건일지</p> <p>8.29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운동 본부 현판식(안동 농민회관)</p> <p>9.01 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실천 대회(의성 안계, 안동 풍천, 영양, 150여명)</p> <p>9.01~04 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농성(목성동 성당)</p>	

		9.03 고문 및 미국 농·축산물 수입 규탄 대회(목성동 성당, 문화회관)	
정부의 대응	경찰병력 투입을 통한 진압		
민주화 운동에 미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에 대한 저항 - 농민의 생존권 투쟁 		
현실태	관리주체	대구사회연구소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사진			
관련자료	천주교안동교구, 『안동교구사 자료 제3집 교구 농민회』, p. 528		
기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쌀생산비 보장 및 농협민주화 쟁취 대회		관리번호	대구·경북-농민사건-06
위치	문현상			
	현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87.9.29.	사건 종료일	1987.10.17.
	사건 관련자/관련단체	상주 사벌, 의성, 예천 풍양, 다인		
	법적 상태	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민주화 투쟁 및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권위주의 정권은 이전의 억압적인 정책을 다소 수정하고 유화정책 추진 - 그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운동이 활발 - 농민운동 역시 그러한 배경 하에서 본격화 ◆사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시기의 활동목표는 농가부채해결 및 외국농축산물 수입저지투쟁을 중심으로 한 투쟁과 사회전체의 운동이 맞물려 사회민주화의 요구가 함께 표출 - 권익활동으로는 농가부채 해결투쟁, 수입개방 저지운동, 수세거부운동, 쌀생산비 보장 및 농협민주화 쟁취 투쟁 전개 ◆사건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29 쌀생산비 보장 및 농협민주화 쟁취 상주 대회(사벌, 100명) 9.30 쌀생산비 보장 및 농협민주화 쟁취 의성 대회(의성, 150명) 10.03 쌀생산비 보장 및 농협민주화 쟁취 예천 대회(풍양, 300명) 10.17 쌀생산비 보장 및 농협민주화 쟁취 다인 대회(다인장터, 100명) 		
	사건 발생일	1987.9.29.	사건 종료일	1987.10.17.

	정부의 대응	- 경찰병력 투입	
	민주화 운동에 미친 영향	- 지역농민들의 생존권 투쟁 -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에 대한 저항	
현실 태	관리 주체	대구사회연구소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사진			
관련자료			
기타			
천주교안동교구, 『안동교구사 자료 제3집 교구 농민회』, p. 529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농산물제값받기운동(고추 제값받기 대투쟁)	관리번호	대구·경북-농민사건-07
위치	문헌상		
	현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도 후반의 '고추 제값받기 대투쟁'은 경북지역 농민운동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일대 사건 - 이 투쟁의 폭발적 전개는 농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켰 뿐 아니라, 농민운동 활동가를 훈련시켜 농민운동의 공간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 기존의 수동적, 사업주의적, 일회적 성격의 운동방식을 극복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함 - 고추투쟁의 결과, 1980년대 후반에는 수많은 대중조직이 여기저기서 건설. 특히 농민운동 조직이 없었던 지역에서도 대중운동 조직이 활발히 건설되어 연대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농산물 제값받기 경상북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실질적인 연대의 틀 마련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88.8.19	사건 종료일 1988.12.9
	사건 관련자/관련단체	안동가톨릭농민회, 영양군농민회, 봉화군농민회, 청송군농민회, 안동군농민회, 예천군농민회, 의성군농민회, 상주군협의회 이유인(구속), 김차원(구속), 이대현(구속), 전영일(구속), 이완재(불구속입건) 유기승(구속), 임차발(구속), 황탁학(불구속입건), 류경희(불구속입건)	
	법적 상태	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배경 - 1987년말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 정부는 양담배·쇠고기 등의 외국 농산물 수입의 길을 터주기 위해 정부는 국내 잎담배 종자에 대한 공급제한을 실시. 이처럼 양담배 수입에 따른 불안심리 때문에 많은 잎담배 농가들이 고추생산으로 돌아섬으로써 발생한 고추의 과잉생산은 고추값을 생산비의 3분의 1선 이하로 하락 - 특히 고추가 농가수입의 60~70%를 차지하였던 경북 북부지역 농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당연한 생존권적 요구로서 '고추 제값받기 투쟁'을 자주적으로 전개 	

-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도 대선 이후의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대중투쟁을 준비하였는데, 이 운동은 1988년 하반기 들어 급격히 고양되고 결과 고추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의 폭발적 고양과 확산은 이 지역의 농민운동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

◆사건내용

- 1988년 8월 19일 영양지역의 고추값 폭락에 대한 항의집회로부터 촉발된 고추투쟁은 봉화·청송·안동·예천·의성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기야 전북과 전남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파급. 영양지역의 싸움은 곧바로 주변지역인 봉화·청송·안동 등으로 확산되면서 고추투쟁의 기폭제적 역할을 담당

- 1988년 8월 19일 영양읍내 장터에서 100여 명의 농민들이 모여 '고추생산비 보장'과 '민중농협쟁취' 등을 내건 농민대회를 개최하면서부터 경북북부일대에는 '농산물 제값 받기' 농민대회가 급속도로 확산. 8월말에 영양군내 마을마다에는 '고추생산비 보장 영양지역 대책위' 이름으로 9월 4일 '고추생산비 보장 영양 농민대회' 안내 포스터와 대자보가 나붙고 현수막이 걸림. 대회 안내 전단 배포, 가두 차량 방송도 계속됨. 9월 4일 오전 11시경 영양읍내 장터 '고추생산비 보장 영양 농민대회'라는 현수막 아래로 1,000여 명의 농민들이 모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고추값 폭락 원인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들이 전개되었고 농민들은 일단 군수와 농협 군지부장으로부터 고추생산비 보장에 대한 정부 대책을 들어보기로 결정. 하지만 군수와 농협 군지부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농민들은 "군수라면 농민을 위해 일해야지 소수 집권자들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가?"며 군청을 향해 행진을 시작. 2,000여명으로 늘어난 농민들이 20여대의 경운기를 앞세우고 군청을 향해 행진을 벌이자 100여 명의 전경들의 완전무장을 한 채 막아섬. 농민들이 경운기로 전경의 저지선을 뚫으려 하자 전경들의 갑자기 농민대열 한복판에다 최루탄을 쏘아 댐. 최루탄을 맞은 농민들은 분노하기 시작. 아주머니들은 치마에다 돌을 주워 나르고 젊은 농민들은 전경을 상대로 투석전. 인근 상인들도 '고추에서 돈이 안 나오면 이곳에서 장사도 끝장'이라면서 농민시위에 함께 동참. 시위 과정에서 농민 8명 등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 이 와중에서 경상북도 경찰국 수사과장이 경운기에 치여 부상을 당했는데, 당시 경운기 소유 농민은 이미 경찰에 의해 경운기에 끌려 내려와 있었음. 경찰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연행, 구속시킴. 다른 농민들도 4명 연행됨. 고추가 주요작물이었던 봉화군에서도 1988년 8월 20일에 '봉화군농민회 결성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고추의 생산비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9월 12일 봉화군 대회에서도 농민들은 군청 앞마당으로 밀고 들어가 군수와 농협 군지부장, 의료보험조합장을 소환, 고추생산비보장문제, 농협민주화 문제, 농촌의료보험문제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벌임. 그리고 군청 앞마당에서 미국, 경제기획

원, 독재정권, 관제농협, 독점재벌, 의료보험조합 등 반농민적인 것을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화형에 처함. 9월 17일에 1,0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제2차 농민대회를 갖고 다시 군청으로 몰려가 1차 대회 때 군수가 약속한 '상부에 건의하겠다'던 사항의 추진경위에 대한 답변 요구. 농민들이 군수실까지 밀고 들어갔으나 군수는 피하고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앞으로 면단위 농민대회를 가지면서 스스로 조직적인 결의를 다지기로 하고 일단 해산. 면단위 대회서도 면사무소와 농협에 대한 공격은 계속 전개. 봉화군 재산면에서는 9월 20일 농민들이 면사무소 앞마당으로 50여대의 경운기에다 고추를 가득 싣고 와서 수매를 요구. 9월 21일에는 영호면 농민 300여명이 면장과 농협조합장을 불러내 고추생산비보장 대책수립을 요구. 10월 2일 500여 명의 농활 대학생들이 봉화 장터에서 제3차 대회를 개최. 이날 농민들은 '청와대로 가서 고추값 폭락 대책을 따지자'며 철도를 점거, 3시간 정도 열차를 불통시킴. 농민들이 경운기로 철길을 막고 있자 경찰은 전경을 동원,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하여 농민들을 해산시키고 18명의 농민과 학생을 연행. 이날 대회로 이윤인, 김차원, 이대현, 전영일이 구속되었고, 이완재 등 4명이 불구속입건. 한편 봉화지역 회원들은 고추생산비 보장과 구속 농민석방을 요구하며 봉화 천주교회에서 철야농성

-고추·담배·사과를 주로 재배하였던 청송군에서도 담배경작이 제한된 후 고추경작이 더욱 증가. 청송군의 농민회 조직 상황을 살펴보면 1983년에 창립된 진보면 '광덕농민회'가 꾸준히 활동을 하는 가운데, '안덕면농회'(1988년 7월 29일, 회원50명), '현서면농민회'(1988년 10월 11일, 회원 80명), 그리고 '현동면농민회'(1988년 10월 25일)가 일시에 창립되어 활발한 고추 투쟁 전개. 이후 청송군에서의 농민운동은 각 면을 중심으로 '농협부채 투쟁'으로 발전. 9월 14일 청송 안덕면 농민 500여명은 부군수를 불러내어 '군수명의로 수입개방 반대한다'는 공고문을 작성, 각 부락마다 부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했으나 부군수는 끝내 이를 거절. 이처럼 면단위 농민대회에서 투쟁력을 쌓은 청송군 농민들은 9월 19일 청송 읍내 장터에서 1,500여명의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청송군 농민대회 개최. 대회 후 농민들은 농협군지부 앞으로 행진해가면서 농협건물에 농민들이 들고 온 현수막 설치

-안동군의 고추투쟁은 길안면과 풍천면에서 시작되어 '안동시·군 농민대회'로 발전. 1988년 10월 2일 안동시·군 대회는 5,000여 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가열찬 투쟁 전개. 이날 대회는 군청 진입을 막아서는 경찰과 농민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 2,300발의 최루탄 발사와 투석전, 화염병 투척으로 많은 농민들이 심한 부상을 당함. 특히 이날 대회에 동참했던 학생이 직격 최루탄에 맞아 눈을 심하게 다쳐 대구와 서울로 긴급 후송당해 치료를 받음. 오전 11시경 안동 역전에서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수입반대, 미국반대, 전두환, 이순자 처단을 외치며 군청으로 행진, 몇 차례 밀고 밀리는 경찰과의 싸움 끝에 군청 점거. 농민들은 군수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나타나지 않자 이날 하루 군청은 농민이 직접

말을 것을 선포하고 안동군내 14개 읍·면별로 14개의 책상을 끄집어내던 중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발사로 군청에서 밀려 나옴. 농민들은 안동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최루탄과 연행에 의해 해산. 이날 대회로 8명의 농민, 학생이 부상, 입원 치료를 받았고 29명 연행, 유기승, 임차발 등 2명 구속, 황탁학, 류경희 불구속입건, 4명 수배. 그 후 10월 12일 농산물 제값받기 경상북도 대책위원회 주최로 안동역전에서 농민대회 개최. 3,000여 명이 농민들이 참여한 이날 대회도 역시 치열한 싸움 전개. 안동 경찰서장은 헬리콥터를 타고 시위진압을 진두지휘하여 농민들을 분노케 함. 안동에서의 2차례에 걸친 농민대회는 영양·청송·의성·상주·봉화군 농민들이 모두 참석하는 '경북지역 농민대회'였는데, 그 결과 1988년 11월에 '안동농민회 결성 준비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여기에 안동가톨릭농민회는 면농민회 및 군농민회 결성을 위해 노력

- 예천군에서도 안동가톨릭농민회는 풍양면을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벌여 왔는데, 1987년 4월에는 '예천 농민회' 결성. 이후 안동가톨릭농민회와 예천 군농민회는 '농산물 제값받기 예천군 대회'를 500여 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1988년 10월 12일에 개최하여 고추와 수입 농산물에 대한 화형식 거행

- 10월 7일 의성 장터에서 1,500여 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산물 제값받기 대회' 개최. 농산물 제값 받기 의성군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군수, 농협 군지부장, 의보조합장을 불러내어 고추값 폭락 대책과 의료보험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 성조기와 양담배, 관제농협, 전두환, 이순자, 반농민적 악법과 제도를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불태우며 농민파탄 원흉들을 응징.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평화행진을 벌인 후 의성성당에 집결, 각 면별로 그 자리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 의성군의 농민운동 조직으로서의 서부지역에서 '안동가톨릭농민회 의성협의회' 산하에 6개의 지부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 10월 8일 상주군 사벌면 단위농협 앞에서 가능 상주협의회 주최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산물 제값 받기 대회' 개최. 이날 대회에서 상주군수, 농조 조합장, 의보조합 대표가 참여 농민들과 토론

◆ 사건일지

- 8.19 영양 제1차 고추제값받기대회
- 8.23 풍양 농민대회(100명)
- 9.04 영양 제2차 고추제값받기대회(2,000명), 12명 연행, 2명 구속
- 9.05 의성 의보시정대회
- 9.09 영양 제3차 고추제값받기대회(3,000명)
- 9.12 봉화 제1차 고추제값받기대회(1,000명)
- 9.13 청송 진보 고추제값받기대회(700명)
- 9.14 청송 농민대회(500명)
- 9.16 청송 현서 고추제값받기대회(300명), 의성 농민대회(700명)
- 9.17 봉화 제2차 고추제값받기대회(1,000명)

		9.19 청송 고추제값받기대회(1,500명)		
		9.20 청송 고추제값받기대회(300명), 봉화 재산 고추제값받기대회(100명)		
		9.21 봉화 명호 고추제값받기대회, 기능, 기능, 진농 쌀값결정에 관한 야3당 초청간담회		
		9.22 안동 길안 고추제값받기대회(300명)		
		9.23 봉화 명호 고추제값받기대회(300명), 안동, 예천 쌀값쟁취대회(700명)		
		9.28 안동, 예천 농민대회(풍산, 800명)		
		10.02 안동시·군 고추제값받기대회(5,000명), 봉화 고추제값받기대회(500명, 18명 연행, 철도점거, 4명 구속)		
		10.03 봉화 구속자 석방 촉구대회(100명)		
		10.06 의성 농산물제값받기대회(1,500명)		
		10.08 상주 사벌 농민대회(100명)		
		10.12 예천 농산물제값받기대회(500명), 안동 농산물제값받기 경북농민대회(3,000명), 2명 구속		
		11.07 봉화 소천 현물상환대회		
		11.10 청송 현서, 안덕 현물상환대회		
		11.12 안동, 봉화 현물상환결의대회(1,000명)		
		11.14 영양 현물상환결의대회(2,000명)		
		11.17 봉화 현물상환결의대회(200명), 여의도 광장 농·축산물 제값받기 및 수입저지 전국농민대회(20,000명)		
		11.25 상주 현물상환 결의 대회, 의성, 다인, 옥산, 단촌 등 8개면에서 현물 상환		
		12.08 예천 현물상환		
		12.09 봉화군 농민회 서울 민정당사 앞 현물 적재 및 농성(60명), 서울 농협중앙회 농성(청송 부남면), 김대중 집앞 농성(청송군 안덕면 농민), 청송군(현서, 안덕, 진보, 파천)에서 현물 상환 투쟁		
	정부의 대응			
	민주화 운동에 미친 영향	- 안동가톨릭농민회 중심의 고추투쟁은 1980년대 후반기 농민운동사에서 가장 고양되었던 농민투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마침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주적인 대중조직이 정착되는 역사적 계기를 이룸		
현실태	관리주체	대구사회연구소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사진				
관련자료				
기타				
천주교안동교구, 『안동교구사 자료 제3집 교구 농민회』, pp. 192-213, pp. 528-529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선산 산동 골프장 건설 저지투쟁		관리번호	대구·경북-사건단체-08
위치	문현상			
	현주소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에 보장된 생활권과 환경권·확보운동 - 여러 민주단체들과의 대중적 연대투쟁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87. 6.	사건 종료일	
	사건 관련자/관련단체	선산군, 산동면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대구·경북지회		
	법적 상태	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p>◆사건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산군은 골프장 사업계획이 제출된 지 두 달 만인 87년 8월에 교통부의 내인가(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거액의 뇌물이 건네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비밀이다)를 받음 - 10월에 선산군수는 산림보전지역과 농지들을 관광휴양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경북도지사에게 제출 - 11월에 선산군수는 선산군 소유 임야 34만 7천 평을 골프장용지로 사업자인 구미개발에 대부해주면서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경북도지사에게 제출 - 이때까지만 해도 사업자는 주민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용도를 밝히지 않거나 혹은 면장 등을 내세워 국가 주요산업등 공장부지로 둘러대기 때문에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헐값에 땅을 매각 - 1988년 2월 농림수산부에서 농지전용승인 - 3월에 건설부 고시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결정 - 5월에 선산군의 분묘이장 공고를 보면서부터 산동면 주민들은 비로소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속았다는 생각과 함께 토지매각을 거부하거나 		

분묘이장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

- 이에 불안해진 구미개발은 1988년 6월 4일 선산군수와 합의각서를 체결
- 당초 골프장 건설계획이 지역 국회의원과 선산군수의 권유에 의해 군민회관 건립에 4억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과 함께, 47만 7천 평의 임야와 농지를 관광휴양지로 용도 변경하고 골프장, 사업계획이 승인 될 때까지 국·공유림 38만 4천 평은 구미개발에 조건부로 대부했다가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즉시 이 땅을 모두 골프장 용지로 구미개발이 사용하도록 선산군은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부지 내 기존 시설물의 철거, 분묘이전, 토지전용 등 모든 행정적 협조도 함께 해주기로 약속한다는 것이 합의각서의 골자(참조: (주)구미개발의 서산골프장 사업추진현황 중 합의각서사본 90.11)

◆사건내용

- 1988년 6월 4일 시점부터 주민들도 본격적으로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산동면 전체 유입자 3,400명의 70%에 해당하는 2,470명 이 서명 날인한 탄원서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 청와대, 경북도지사, 선산군수 등 행정기관과 조선일보, 경북일보 등 각 언론기관 및 정당에 제출
- 1988년 10월 6일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당시 경북지사는 “반대자와 찬성자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선산군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
- 10월 16일 환경청은 “협의조건만 제대로 이행하면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는 선산골프장 건설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서둘러 경상북도 지사에게 통보
- 1989년 5월 13일 김상조 지사는 “주민이 반대하면 착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데, 1989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이미 허가는 나갔지만 많은 반대자가 있으니 철저히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완전히 해소되고 대토 실시 등으로 특혜의 의혹이 없도록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또 약속했지만 하나도 해결하지 못함
- 7월에는 300여명의 주민이 경북도청을 점거, 도지사면회를 요구하며 점거농성.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투쟁조직을 재정비.
- 산동골프장 결사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효열)는 산동청년회 등을 기반으로 한 투쟁조직으로 성장
- 이러한 산동면민들과의 투쟁에 대구·경북 민주교수협은 대책위를 결성, 적극적으로 동참. 주민교육과 지원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한 골프장 설치의 부당성 홍보에 주력
- 1989년 9월부터 골프장 측과 맞서 3번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민교협과 연계한 자체적 주민교육(농업기술교육 포함)과 학생들과 협력하여 골프장 반대연극을 각 마을회관에서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국 1990년 6월 뇌물수수죄로 구속. 새로 부임한 김우현 경북지사도 300여명의 주민들에게 "한 사람의 반대만 있어도 착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음 - 1990년 11월 21일 골프장 부지에 마침내 건설장비가 투입되자 주민들은 3일 동안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주민 500여명은 집단 시위를 벌이면서 이에 항의하는 한편, 현장 내에 비닐하우스와 천막을 짓고 하루 평균 100~150명의 주민들이 현장을 감시하면서 4개월째 철야농성을 계속했다. - 12월 24일 또다시 작업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농성하던 주민들이 뛰어나와 이를 저지하려 하자 시공회사측이 동원한 폭력배들이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구타함으로써 17명이 부상하고 이중 3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음 - 그러나 출동한 전경대원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도 전혀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주민대표들이 오히려 시공회사로부터 업무 방해죄로 고발되거나 집시범위반으로 경찰에 불려 다니면서 계속 시달림을 받고 있는 상황 		
정부의 대응	- 경찰병력 투입		
민주화 운동에 미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민들의 생존권 투쟁 -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에 대한 저항 		
현실 태	관리 주체	대구사회연구소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사진			
관련자료	천주교안동교구, 『안동교구사 자료 제3집 교구 농민회』, p. 529		
기타			

5) 대구·경북지역 농민운동 주요 사적지

(1) 안동 문화회관(안동 가톨릭회관)

□ 위치 : 안동



구 안동문화회관



현 안동문화회관

□ 역사적 의의

1986년 농가부채탕감대회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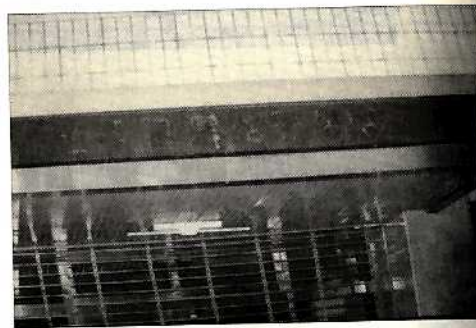
1986년 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 운동

(2) 안동 목성동 성당

□ 위치 :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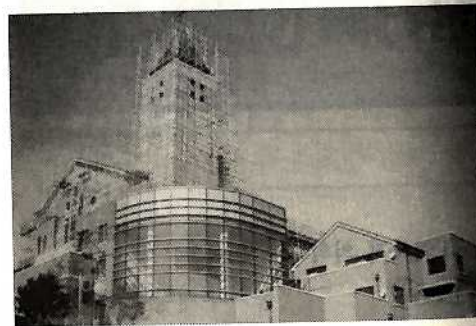
안동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구 목성동 성당



현 목성동 성당



신축 목성동 성당

- 역사적 의의
- 1979년 안동가톨릭농민회 사건(일명 오원춘 사건)의 중심
 - 1985년 소값피해보상운동
 - 1986년 농가부채 탕감대회, 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 운동

(3) 안동역

□ 위치 : 안동



현 안동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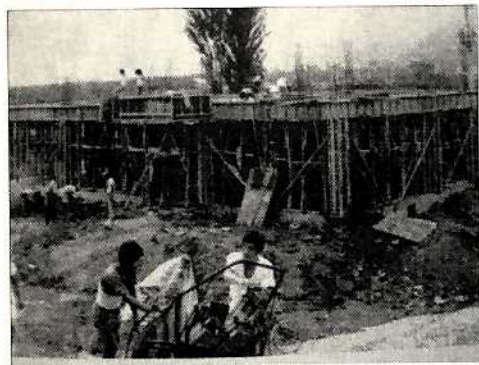
구 군청: 현 안동역가는 거리

□ 역사적 의의

- 1985년 소값피해보상운동
- 1986년 농가부채 탕감대회
- 1986년 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 운동

(4) 안동농민회관

□ 위치 : 안동



안동농민회관 신축모습



현 안동농민회관

□ 역사적 의의

1986년 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 운동

(5) 안계 시장과 안계성당

□ 위치 : 의성



다인-안계간 소몰이 시위



다인-안계간 소몰이 시위



안계성당



안계시장

□ 역사적 의의 1985년 농지개량조합조합비(수세) 현물 납부 투쟁, 소값피해보상운동의 중심

1986년 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 운동

(6) 다인성당

□ 위치 : 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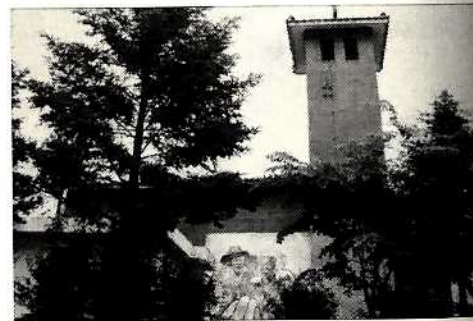
쌀생산비 보장 및 농협민주화쟁취 의성대회



민주농협 및 의료보험 통합제 쟁취를 위한 운동



소몰이 시위



현 다인성당

□ 역사적 의의

- 1985년 농지개량조합 조합비(수세) 현물 납부투쟁, 1985년 소값피해 보상운동의 중심
- 1987년 쌀생산비 보장 및 농협민주화쟁취 의성대회
- 1988년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 민주농협 및 의료보험 통합제 쟁취를 위한 운동

(7) 영양장터

□ 위치 : 영양



현 영양장터

□ 역사적 의의

- 1988년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고추제값받기 대투쟁)의 시발지 및 중심지

(8) 구미 선산 산동 골프장

□ 위치 : 선산



현 선산 산동 골프장 입구

□ 역사적 의의

농민의 집단적 권리의식의 분출.
1987년 이후 전국 골프장투쟁의 중심

(9) 대구백화점

□ 위치 : 대구



세계화 반대, 경제주권수호, 민중생존권 쟁취 아셈 2000 반대 민중투쟁의 날



현 대구백화점

□ 역사적 의의

-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철회 촉구 범 시도민 결의대회(1993.12.11)
- 노동자·농민대회(1994.1.15)
- 민족의 자주·평화·대단결을 위한 시도민 통일한마당(1998.8.9)
- 농정공약 이행촉구 및 농민생존권 투쟁을 위한 99 농민대회(1999)
- IMF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대개혁을 위한 99 민중대회(1999)
- 대구·경북지역 민족민주열사추모제 및 6월항쟁계승결의대회(1999.6.12)
- 민족자주권쟁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 결의대회(1999.10.9)
- 축협노조 수입최고기 판촉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2000.1.13)
- 농기부채해결, 신자유주의 반대, 김대중 정권 규탄을 위한 노동자·농민·학생대회 및 민중연대 출범식(2000.4.1)
- 세계화 반대, 경제주권수호, 민중생존권 쟁취 아셈 2000 반대 민중투쟁의 날(2000.10.14)
-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쟁취, 김대중 정권 퇴진 대구·경북민중대회(2000.12.9)

6) 첨부 자료 목록

1) 문헌자료

(1) 자료 I - 농민운동 상(개별 문서 자료)

가톨릭농민회 자료집 1-8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1991-2002)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여름간부일꾼학교, 2000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자료집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 상주농민 제1호, 1997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 상주농민 제2호, 1997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 농민세상, 1996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 농민세상 제3호, 1997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 쌀수입개방·자료집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 정기총회, 1999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 정기총회, 2001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대회보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승리와 희망 제1호-39호(1996-200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 창간호, 1990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성군농민회, 의성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성군농민회, 제9차 정기총회, 1997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성군농민회, 제14차 정기총회, 2002

전국여성농민위원회, 제1기 여성농민활동가 교육자료집, 1990

전국농민회총연맹 안동농민회, 제6차 정기총회, 1994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미시농민총연합, 우리농민이 바로 주인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송군농민회, 제8기 1차년도 여름수련회, 2001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령군농민회, 협동조합교육, 2000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경북지역 여성농민의 지위향상과 농협의 역할, 2003

경북여성농민회, 경북여성농민회연합소식, 1997

경북여성농민회, 경북여성농민회연합소식, 1998

전국농민회총연맹 길안면농민회, 제9차 정기총회, 1997

전국농민회총연맹 성주군농민회, 교육자료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미시 고아읍 농민회, 농민세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영천시농민회, 영천농민 제4호, 1996

(2) 자료 II - 농민운동 하(단행본)

천주교안동교구, 『안동교구 자료 제3집 교구농민회』, 천주교안동교구 1996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1966-1996)』, 한국가톨릭농민회 1999

농민운동 녹취록 CD 첨부

4.

교육 · 문화 · 여성

교육운동

1) 개요

대구·경북 지역의 교육 운동은 역사가 깊고, 투쟁의 강도 또한 드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으로 대변되는 지금의 교육운동은 그 전통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항일 민족교육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 터져 나온 교사들의 현실 참여가 본격적인 출발이었다. 바로 한국 교원 노동조합 운동이 그것이다. 교원노조가 탄생한 곳이 대구였으며, 그 핵심 인물이 대구에서 활동하였고, 큰 사건도 대구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 신 군부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는 대구·경북 지역이 정권의 창출지라는 일종의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를 낳게끔 했다. 이 빼놓아진 자긍심은 대구·경북 지역에 정치적으로 보수 일변의 풍토를 퍼트렸다. 그래서 지금껏 민주화운동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으며, 이는 교육 운동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역설적으로 대구를 교육 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곳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전교조 운동의 직접적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YMCA 중등교육 협의회(약칭 Y교협)가 대구를 중심으로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 사실을 부분적으로 증명한다. 전교협과 전교조로 이어지는 1980년대의 교육민주화운동은 신 군부 정권과 그들과 담합한 문민정부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대구·경북 민주화운동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치열한 투쟁의 한 가지로 자리매김한다.

1980년대 후반, 대구·경북 지역의 전교조 운동은 그 출발부터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전국 단위 조직의 하위 단체로 초기의 조직 건설과 그에 따라 벌어진 정부, 지방 교육 당국의 탄압에 맞선 투쟁이 주요한 운동 내용이었다. 그 뒤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 투쟁이 지역에서도 전면적으

로 벌어진 한편, 조직 강화를 위한 대학, 지식인과의 연계활동도 이루어졌다. 교육 199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합법화 투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또 한 편으로, 대구·경북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은 지역에서 일종의 학술적인 사회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지방사회연구소”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하여 지식권력을 지역 사회로 배분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대구·경북의 토착 권력층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구조적인 문제와 부딪혀 싸우는 단계로 이어졌다. 예컨대 “대구·경북 민주화교수협의회”는 교육문제에 대하여 대학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취한 비판적 입장이었다. 그들은 좀더 나아가 그들이 몸담고 있는 대학 내 문제를 스스로 따져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2) 대구·경북지역 교육운동사 시기별 개괄

(1) 1960년대: 4·19 시기를 전후로

① 한국교원노동조합 운동

한국교원노동조합(약칭, 교원노조) 운동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교육민주화운동이다. 4·19 혁명 이후 본격화된 교원노조 운동도 그 출발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일부 노동법학자들에 의하여 문제 제기된 노동조합법의 항목은 교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게 된다. 즉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모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후 몇 차례 교원노조 결성이 시도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거기에는 이승만의 독재 체제가 내세운 반공주의의 명분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60년 대구에서 일어난 2·28 학생시위는 사건 자체가 가진 역사적 의미도 컸지만, 일선의 많은 교사들에게도 큰 자책감을 안겨주었다. 즉, 제자들이 독재에 대항하여 싸우는데, 자신들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는 고뇌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한국 교원노동조합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되었고, 가장 열렬히 전개된 배경에는 2·28 학생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1960년 4월 27일 대구의 중고교 교원 60여명이 경북여고의 동편 한 교실에 모여 난상토론을 처음으로 가졌다. 여학룡, 서석은, 이목, 손종섭 등이 모인 이 자리에서 여학룡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들은 조속히 발기인총회를 열어 조직을 갖추기로 합의하는 한편, 단체의 강령도 채택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⁸⁰⁾

80)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푸른나무, 1989, pp.19-20

- 학원의 완전자유보장
-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 교원의 신분보장제 확립
- 교육 제조건의 개선 및 학원의 민주화
- 학생의 건전한 성장발전
- 학원의 정치적 중립과 비영리화
- 관권의 횡포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
- 교원단결을 통한 민주세력의 확립
-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생활향상
- 교권확립
- 단체교섭
- 단체행동의 자유권 보장
- 4·19 혁명 성과 보장

두 차례 결성준비 위원회 모임을 가진 이후 5월 7일 대구상업고등학교 강당에서 대구 시내 중고교 교사 28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노동조합이 탄생되었다. 김장수를 위원장에, 부위원장에 여학룡, 송영기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 단위로 분회를 조직하고, 각 분회마다 대의원을 두 명씩 선출하도록 결정하였다. 한편, 같은 날 대구국민학교 강당에서는 국민학교 교사 1300여명이 따로 모여 초등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정호강을 위원장에, 신우영과 소효영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교원노조는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운동이 활발했던 대구의 영향 아래 경북 안동, 영천, 경주, 포항, 청송, 김천, 영주, 경산 등 전 지역에 5월 한 달 동안 단위조합의 결성이 완료되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서울의 교원노조와 비교할 때 매우 열성적인 조직 운동이었다.

그렇지만 곧 일선 학교장들은 교원노조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였으며, 처음에 관망적이었던 정부도 교원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5월 24일에 최초로 대구역 앞 광장에서 교원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한 과도정부에 대한 규탄 대회가 열렸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좀더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한 운동을 위한 전국 총연합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7월 3일 청구대학(현 중구 밀리오레 의류 쇼룸몰) 강당에 전국의 200여 명의 대표자와 대구의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여 총연합회 결성 예비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7월 17일에 서울 의사회관에서 총연합회가 결성되어, 실무책임 맡은 사무국장에 이목이 선출되었다.

7월에 접어들어 정부의 노조 탄압과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었다. 과도정부는 교원노조를 해체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일련의 조치로서 대구·경북의 핵심인물 30명 중 25명에게 강제적인 전근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한 투쟁이 8월 내내 실시되었다. 경북 도청에서의 연좌시위와 삼덕동 도지사 관사 항의방문, 맥카나기 미국대사 대구방문에 맞춘 면담이 이어졌다.

운동의 절정은 8월 20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5,000명이 모인 전국 교원노조 총궐기 대회였다.

이후, 각종 교직단체법과 노동조합법, 데모규제법, 반공특별법⁸¹⁾ 등 관계입법에 대한 반대투쟁과 조직 합법화 투쟁이 계속되었으며, 운동은 1961년 4월 햇불시위처럼 극한 양상으로 커져갔다.

물론 이러한 대정부 투쟁만이 운동의 전부는 아니었다. 예컨대 문맹퇴치 운동과 결식아동 밀가루 지원과 같은 사회 봉사활동이 실시되었다. 또한 교사들 스스로가 근검절약에 출선수범하는 신생활운동, 조합원 교사들에 대한 교육 운동⁸²⁾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행사는 예술제였다. 이 예술행사는 4·19혁명을 기념하고 제 2공화국 수립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예술제는 1960년 11월, 문학과 미술, 음악, 무용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웅변대회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행사도 투쟁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일선 교장들의 방해로 학생들의 참가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듬해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이틀 후인 5월 18일 교원노조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16일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모든 정당,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구금되었다. 대구는 서울보다 하루 늦은 18일부터 검거가 이루어졌다. 치안국이 발표한 “전국의 용공분자”가 2000명이었는데, 그중 교원노조원들의 수는 대략 1500명이었다. 기소된 간부 중 대구·경북 지역의 활동가는 김장수(대구지구 중등교조위원장), 여학룡(대구지구 중등교조부위원장), 김문심(경북연합회 위원장), 이목(총연합회 사무국장), 신우영, 조영진(경북연합회 부위원장) 등이었다.⁸³⁾ 이들은 1961년 11월 혁명재판소에서 최고무기징역에서 징역 3년까지 형이 확정되어 실형을 받았다.⁸⁴⁾ 이로써 교육민주화운동은 이후 20년의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2) 1980년부터 1987년까지: 5공화국 하의 교육민주화운동

①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대구지역회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약칭 Y교협) 대구지역회는 성명여중에 재직하던 이재원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이재원 이외에도 김시철(남산여고), 김정호(사대부고), 조원재(협성상고), 현대덕(대건고) 서정렬(선산 고아고), 박창우(신명여고) 등 주로 YMCA 회원이었던 이들은 1981년 12월 17일 YMCA 회관에서 ‘대구YMCA중등교육자회’ 발기인 모임을 가지고,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이재원을 뽑았다.⁸⁵⁾

서울과 마찬가지로 대구 Y교협은 처음에는 교육운동에 관심 있는 대구·경북 지역 교사들이

81) 이른바 2대약법이라 부른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은 이승만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만든 통제장치였다. 이 시기에 교원노조는 2대약법을 철폐하는데 조직의 힘을 집중시켰다.

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은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들 스스로가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83) 검거된 기소자 중에서는 학생도 포함되었다. 2대약법반대 연대투쟁 사건에 연루되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위반으로 기소된 정만진이 그러하였다. 이후 그는 전교조 대구·경북 지부장을 맡아 교육민주화운동을 하게 된다.

84) 이목, 위의 책, p.366

85) 배창환, 「대구지역 교육운동의 회고」, 이만호선생 퇴임기념문집 『교육과 민주화』, 2000, p.150

가진 학습 소모임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 교사 대부분이 가입할 무렵에는 민주화나 노동조합에 대한 열의나 지식을 가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다만 개신교 신자로서, 좀더 나은 교육자가 되는 희망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⁸⁶⁾

Y교협에서 교육민주화운동을 시작한 교사들은 대부분 조직 활동과 독서 토론회와 아울러 당국의 탄압을 받으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대구 YMCA이사로 서울 YMCA와의 교류가 많았던 이재원은 계성재단과 협성재단의 젊은 후배 교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건설했고 전국 Y교협 회장도 역임하면서 한국교육운동의 핵심인물이 되었다. ‘기독교 정신과 교육자적 신념’에서 출발한 이 모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신교 신자 혹은 YMCA 회원이 아닌 교사들이 가입했다. 이들 가운데 정호영, 김순녕, 이병희, 손혜련 등은 이후 Y교협에서 전교조에 이르는 대구·경북 교육운동의 한 축을 맡게 되었다. 이들은 대구 초등학교 앞 건물(대륙양복점)에 위치한 물레출판사 복도에 사무실을 내어 활동했다.

초기 활동 중 눈에 띄는 성과는 여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당시 사학재단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은 결혼과 함께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었다. 사립학교의 여교사들은 채용 당시 ‘백지사표’와 ‘결혼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적으로 쓰는 사례가 많았다.⁸⁷⁾ Y교협은 이러한 불합리한 고용 조건에 맞서 투쟁하였고, 마침내 승리하였다.

1985년에는 경북 안동에서 Y교협이 출범한다. 안동지회는 대구지회의 지원을 받으며, 6월 29일 안동 YMCA 회관에서 창립되었다. 초대 지회장은 경덕중의 김대성이 추대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안동에서는 한 여교생의 불온서적 소지사건⁸⁸⁾이 일어났다. 한국 기독교운동 총연맹 안동지구 회원이었던 이금난(길원여고 2년)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서적 “들여라 역사의 외침을”이 문제가 되어, 지도교사 김대성(경덕중 역사담당, 안동 Y교협)을 즉심에 넘기고 해직된 사건이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민중교육지’ 사건은 Y교협 대구지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전국회장이었던 이재원과 지역회원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6년으로 접어들어 개헌문제가 정국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면서, 5월 10일 ‘민주교육 실천선언(교육민주화선언)’이 발표되었다.⁸⁹⁾

86) 그것은 조직의 핵심이었던 이재원의 술회에서 그대도 드러난다. 1981년 서울 YMCA 이창식 간사와의 대화 중 일부이다.

이재원 : Y교사회가 교원노조 운동을 하자는 것은 아닌지요?

이창식 : 아닙니다.

이재원 : 확실할까요?

이창식 : 물론 확실합니다.

이재원 : 그렇다면 가입하겠습니다.

87) 이석우, 「대구·경북지역의 Y교사회 활동과 이재원 선생님」, 이재원, 『참교육의 길』 사람, 1996, p.125

88) 이석우, 위의 책, pp.137-139

89) 선언문의 내용은 1. 교육의 정치적 예속으로부터의 해방 선언, 2. 박탈당한 교사의 시민권과 교육권을 찾기 위한 권리선언, 3. 교육행정에서 관료적인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교육 행정의 민주화 선언, 4. 어용적 교원단체를 물리치고, 자주적인 교원단체를 수립하려는 교원 자주 선언 등의 성격이었다. 이것은 교육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현장’이었다.

8월 15일 대구 목상의 집에서 영남지역 임원회를 가졌고, 9월 6일 부산 YMCA강당에서 영남지역 교육민주화 실천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 참여한 대구 지역 회원 전원(이재원, 서중현, 김순녕, 이병희, 박우현, 손혜련)이 징계 당했다. 이 사건에는 사학 재단 비리의 복잡한 사정이 숨어있었다. 징계 대상 6인중 4명이 속해 있었던 협성재단의 경우, 이사장 신진욱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공천을 준비하면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남기고 있다.

Y교협의 존재는 일반 대중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Y교협 대구지회는 처음에는 단순히 YMCA의 산하 교사단체로서 친목과 학습동아리 차원의 소그룹 활동에서 시작했지만, 6년 동안의 탄압 속에서 오히려 조직이 탄탄해지고 성장하였다. 이후 벌어진 본격적인 교육민주화 운동의 핵심 인물들을 키운 기여를 했다.

한 가지 빼 놓을 수 없는 사실은 YMCA의 공헌이다. YMCA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의 한 거점이자 주체로 이바지하였다. 대구 YMCA는 1980년대 중반 대구지역 민주화운동이 벌어진 중요한 공간이었다. 1970년대부터 기독교 청년학생 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1980년대에 대구 YMCA의 실무를 맡은 것은 Y교협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YMCA는 Y교협을 통해 교사들이 합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을 제공했다. 이상점 대구 YMCA 기획정책국장 등 YMCA 실무자들의 지원은 초기 교육민주화운동의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② 대구·경북 지역교사협의회

대구·경북 지역교사협의회는 전국교사협의회(약칭, 전교협)의 하위 단위였지만 단위 조직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강했다. 1985년 서울에서 벌어진 “민중교육”지 사건과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Y교협은 한층 더 힘을 얻게 되었다. 당시 대구 교협에서 활동하던 교사들은 이재원 이외에 조판제, 손혜련, 김순녕, 정호영, 이병희, 이석우, 정정욱, 심은희, 김영숙, 박우현, 장애숙, 정만진, 서중현, 배창환, 이도걸 등이었다. 한편 정준모, 차영민, 김대성, 김헌택 등 북부권 교사들은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따로 모임을 가지면서 독립적인 조직체를 이루어갔다. 경북 교사협회의 결성은 이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있는 후, YMCA의 우산 밑에 있던 대구·경북 교육 운동은 그 틀을 벗어나 좀더 큰 운동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Y교협 회원들은 주요 활동가였지만, 좀더 많은 일반 교사들의 대중적 지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무렵,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민주교육추진을 위한 전국교사협의회’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대륙양복점 2층 우리문화연구회가 쓰는 복도를 빌어 사무실을 차린 회원들은 대구지역의 전교협 지부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우리문화연구회와 Y교사협회의 동거는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건물에 입주해있던 “우리문화연구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문화예술 운동가들의 결사체였다.⁹⁰⁾ 당시의 상황은 교육과 예술, 노동, 정치, 학생 운동이 제휴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전부터 교류를 가져오던 여러 활동가⁹¹⁾들은 매 운동 국면마다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교시풍물패 “울림” 공연, 교육문화 창작회가 주도한 “시와 노래의 밤” 등은 문화운동과 교육운동이 결합된 사례로 기록된다.⁹²⁾ 여러 교육운동의 집회현장에는 춤과 노래 공연과 같은 문화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문화예술운동은 그러한 지원세력이었다.

Y교협은 9월 26일, 대구·경북 교사협의회 준비토론회를 대구 YMCA 회관에서 연다. 사복부술경관들의 원천 봉쇄로 행사는 이루어 질 수 없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비상장소인 대명신학원으로 이동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10월 31일에 남구 봉덕성당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번에는 지난 9월 26일에 비밀 장소로 사용했던 대명신학원을 공식장소로 정보를 흘린 다음, 또 다른 장소로 봉덕천주교회를 택한 것이다. 경찰들의 포위망을 뚫고 온 윤영규 전교협 회장과 이수인 교수의 축사가 있었고, 창립선언문 및 실천강령을 채택했다.

이로써 Y교협은 교육운동의 역사 속에 마침표를 찍었다. Y교협의 핵심인물 이재원은 대구·경북 교사협의회에서도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이도걸(죽전중)과 이병희(협성고)가 부회장에, 배창환(성당중)이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경북대 사범대에서는 김병하, 김민남 교수를 중심으로 “우리교육연구회”가 창설되어 교육 문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하기 시작한다.

대구·경북 교사협의회가 출범하기 전인 1987년 10월 19일, 한 식당(화청궁)에서 경화여고의 평교사 29명이 평교사협의회를 결성했다.⁹³⁾ 이는 대구·경북에서 최초의 사건이며, 전국적으로도 전남에 이은 두 번째 사례였다. 이후 경화여중은 가장 강력한 평교사협의회 운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경화여중이 평교사협의회의 전위에 선 이유를 살펴보면, 경화재단이 영세한 후발 사립재단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 주위의 다른 학교에 비해 교육 환경에 투자가 부실했던 재단은 그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경화여고에 살인적인 자율학습과 입시위주의 생활지도로 악명이 높았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 일선에서 겪어야 하는 평교사들의 고뇌는 조직 결성 이후 강한 결속력으로 드러났다.

평교사회는 경화여중고에 이어, 영신중고, 신명여중고, 덕원고, 협성고, 청구고 등 많은 사립 학교로 확산되어갔다. 여기에는 “구미연수원 투쟁”의 승리가 평교사들에게 일종의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크게 작용했다. 구미연수원 사건은 1987년 9월 정교사 1급 자격증 연수를 받은 평교사협의회 소속 교사들이, 연수원과 관련한 학교, 재단의 비리를 포착하고 항의한 끝에 승복시킨 사례이다. 이 평교사협의회는 이후 전교조 활동을 이끈 이만호, 이도걸, 정만진, 최연호 등 수많은 운동가들을 배출한 운동조직이다.

1988년은 지역교사협의회가 대구와 경북으로 분리하였으며(2월 6일, 범여성당), 대구교사협

90) 우리문화연구회는 문화예술 운동 부문에서 상세히 다룰 것임.

91) 학생운동, 정치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문화예술운동의 여러 활동가들과 달리, 교육운동가들은 대학시절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자가 다수였다. 그러므로 다른 운동 부문처럼 이미 대학 시절부터 인맥을 형성하여 조직을 활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은 좀더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92) 배창환, 2000, 「대구지역 교육 운동의 회고 1981.12-1989.8.」, p.155

93) 배창환, 위의 책, p.159

의회와 평교사회가 제휴하여 “대구평교사연합회”를 건설한다(9월 2일 반월당 할매칼국수). 대구 평교사연합회는 구 단위로 활동하는 하부 운동조직으로서 “지역교사 협의회”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교사협의회의 모든 운동역량은 “지역교사협의회”가 대중 교사들을 끌어들이는데 집중되었다. 그 결과 당시 대구의 전체 교사 중 13%에 해당하는 1700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이 숫자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2000년까지 이루어진 무수한 탄압과 와해 공작 속에서도 줄어들지 않았다.⁹⁴⁾ 10월 30일에는 경북대학교 대강당 앞 광장에서 “민주교육법 쟁취 결의대회” 겸 “대구·경북 교사협의회 창립 1주년 집회”를 열었다. 1500명이 운집한 이 행사는 교원노조 사무국장 이목의 축사와 같이, 다시 불붙은 대구·경북 교육민주화운동을 전국에 알리는 행사였다.

(3) 1988년 이후: 본격적인 교육 민주화운동

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은 1980년대초 Y교협부터 전교협을 거치면서 운동 역량을 키워온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해간 운동 단체이다. 당시 민주당, 평민당, 공화당으로 이루어진 야 3당은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노태우 정권과 여당은 교련(현 교총)과 사학재단연합회, 문교부의 반대를 등에 업고 기각하였다. 이에 실망한 전교협은 “법개정과 상관없이 교원노조를 추진하겠다⁹⁵⁾”고 선언하였다.

대구에서도 전교협의 노동조합 추진은 이루어졌다. 이재원에 이어⁹⁶⁾ 대구교사협의회 2대 회장에 선출된 최연호의 새 지도부는 4월 28일 대명동 가톨릭 문화관 강당에서 “교직원노조추진위원회”를 꾸리게 되었고, 추진위원장으로 이만호를 추진위원장에, 정만진을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했다.

5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경북 발기인대회”가 경북대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대구 이만호 추진장, 경북 이영희 추진장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는 1500명 소속 교사가 모두 참석하여, 5월 28일로 다가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식”을 다짐하는 자리를 겸했다.

6월 8일에는 전교조를 지지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들의 지지 성명서가 발표되었다(내용 및 명단은 별첨.). 이들 중 경북대 김민남 교수 등 70여명의 교수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에 정식 가입하는 특별한 사례를 남겼다.

6월 11일, 전교조 대구지부 창립대회가 경북대 야외공연장에서 열림으로써 대구 전교조는 정식으로 출범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대협 소속 대학생들은 각 방향의 교문 앞에서 학내로 진입하여 대회를 중단시키려는 경찰에 맞서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 주었다. 대회를 마친 후, 대명동 영남대 로터리 근처 전교조 사무실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⁹⁷⁾⁹⁸⁾ 노태우

94) 배창환, 위의 책, p.166

95) <전국 교사 신문>14호, 1989년 2월 15일

96) 1989년 1월 17일, 전남 장성 전남대 연수원에서 대구교사협의회가 광주교사협의회와의 ‘만남의 밤’ 행사를 가지던 중, 이재원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97) 지부장: 이만호(영남고), 부지부장: 최연호(심인중),

사무국장: 정만진(영신고), 정책실장: 정도원(송현여고),

정권은 곧바로 이도걸 국공립교사협의회장을 구속했고, 아울러 대량 해직 등 본격적인 탄압에 들어갔으며, 교사들과 학생들은 농성으로 대응하는 사건이 각 학교에서 벌어졌다. 경상고등학교의 사은회 사건,⁹⁹⁾ 경화여고의 김수경 학생 투신자살 사건¹⁰⁰⁾ 등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11월에는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된 이만호 대구지부장이 명동성당 단식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부산에서 구속되었다. 이에 “전교조 탄압 저지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공동대책 위원회”가 결성되어 전교조의 투쟁을 지원하게 되었다.¹⁰¹⁾

그때부터 1999년 7월, 전교조가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하고 합법화된 시기까지 전교조가 벌인 활동의 상당부분은 조직수호, 해직교사들에 대한 복직투쟁과 후원활동이 차지했다. 전교조는 단식농성과 시국선언 등을 통해 탄압활동에 맞섰다. 그러한 저항 운동의 한 부분은 문화예술운동이나 노동운동과 결합했다. 예컨대 야학활동이나 현장문학과 같은 것이 그 투쟁의 산물이다. 또 한편으로, 그 당시는 학교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이 연구되고 마련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전국 단위의 교육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구Y교협, 대구교협을 포함한 1980년대 대구 교육민주화운동의 핵심은 분회 조직을 건설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는 구체적인 탄압 방식이었던 해직에 맞선 투쟁이 이어졌고, 이어서 전교조 합법화 투쟁과 참교육과 연구 실천에 관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초중고교의 전교조 운동은 대학의 교수 운동과 점점 밀접해져 갔다.

사립동북구 지회장: 박지국(정동고),

사립중남구 지회장: 김상완(영남고),

사립수성구 지회장: 최정수(능인고),

사립서달서 지회장: 현암수(송현여고),

국공립지회 준비위원장: 이도걸(죽전중),

초등지회 준비위원장: 최이운(서대구초등).

98) 경북지부는 사무실을 안동에 설치하고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김창환(예천), 김윤근(경주), 조영옥(영주) 등의 활동가들이 전면에서 조직을 이끌어 나갔다.

99) 경상고 사건은 교육운동의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이다. 학생들이 해직 스승을 찾아 사은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중징계한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또한 교사가 학교 정문 앞에 노숙하면서 단식 농성한 사건도 최초의 일이었다.

평소 해직 교사에 동정적이었던 고2 학생들이 선배 졸업식에 즈음해서, 행사에 해직 교사를 초대하자고 제안한 것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평소 학교내 기타연주 동아리 “소리통”에서 친하게 된 라상현, 백재호 등 4명은 북부경찰서 형사들과 어용교사들의 방해로 스승들과의 만남이 무산되어 버렸음을 아쉬워했다. 그래서 다시 경북대 인문대 강당을 빌어 사은회를 가졌다. 이 일은 다음날 영남일보에 미담으로 소개되었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네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 명예 훼손 및 불법집회 참여로 두 명에게 무기 정학을, 나머지 두 명에게 유기정학을 내렸다. 이 사건에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 인권 위원회 등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학교를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100) 경화여고 학생회 간부였던 김수경이 1990년, 학교의 탄압에 맞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

101) 소속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정의구현대구연합, NCC 대구인권선교위원회, 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대구·경북 민주회교수협의회, 참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교사가족회, 대구·경북 노동조합연합준비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건강사회실현을 위한 치과의사협의회, 대구·경북 사회과학서적 연합, 대구 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대구 여성회, 대구·경북 총학생 연합 건설 준비위원회, 대구·경북 민족민주운동 연합 등이다.

② 지방사회연구회

한편 초중고교의 교사들이 떠나간 교육민주화운동과는 별도로, 대학에서의 학술적인 성격을 띤 운동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학 교수운동이 그것이다. “지방사회연구회”(약칭 지사련)는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민주화에 기여하려 했던 학술운동 단체였다. 지역사회와 국가사회에 놓여있는 여러 사회적, 민족적 모순을 학문적으로 해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학술, 교육, 문화운동으로 실천하려 했다.

1985년 11월에 설립된 지방사회연구회는 처음에 지역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학술과 친목을 겸하는 모임을 구상했던 것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곧, 대구·경북 지역에 진보적 학술단체가 전무하다는 인식에 동감을 한 구성원들이 조직의 방향을 좀더 교육운동과 같은 좀더 현실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쪽으로 돌렸고, 이는 해직교수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좀더 구체화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대학 내에 민주화에 공감한 소모임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학문 속에 숨어버리거나 때로는 운동의 명분에 치우친 나머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었던 사례가 많았다.

이에, 지방사회연구회는 좀더 조직적인 학술모임으로 발전을 꾀하면서 “지방사회의 제 문제와 관련한 학술조사 및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을 기하는” 목적을 밝혔다. 그래서 초기부터 배영순, 최상천, 이윤갑 등이 담당했던 역사교육 강좌처럼, 대안적이며 현실 비판적인 강연회와 세미나 활동이 이루어졌다. 지방사회연구회는 5회에 걸친 심포지엄¹⁰²⁾과 역사, 교육, 문학 등의 학술강좌 개설로 구체화되었다.

지방사회연구회는 1992년에 이르러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대구사회연구소”(약칭 대사련)로 재출범하기로 결의하였다. 새롭게 문을 연 대구사회연구소는 매월 박사급으로 이루어진 연구위원들이 회의를 가지며, 각 사업에 대한 점검과 토론을 한다. 교육연구, 문화연구, 환경연구, 보건의료연구, 지방자치연구, 법제연구, 도시개발연구, 산업연구, 농업연구, 노동연구로 이루어진 각 연구분과가 활동 중이다. 1995년에는 “대구시민대토론회”라는 초유의 대규모 시민 학술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의 두뇌집단 역할을 겸해 나가고 있다.

지방사회연구회와 그 후신인 대구사회연구소는 기존의 교육, 지식 체계가 서울-지방 사이에서 위계적인 관계로 소통되는 것을 비판했다. 서울에서 생산된(그것 또한 외국에서 수입한) 지식 교육 담론이 지방에 소개하는 차원에 그친다는 문제제기이다. 연구진은 그 지식 소통 구조가 지역 교육계에 직접 이어지는 새로운 장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는 지역 대학 개혁과도 이어졌다. 지방사회연구소가 대구·경북 민교협 창립에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

102) 지방사회연구회가 주도한 심포지엄은 다음과 같다.

- 1회 지방사회 현실의 실천적 인식(1986)
- 2회 분단시대의 국가와 민족문제(1987)
- 3회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민족민주운동(1988)
- 4회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제-대구·경북지역의 실태와 과제(1990)
- 5회 지역 교육 및 언론의 실태와 과제 (1991)

을 뒷받침한다.

③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구·경북지회

사회에서 학문 활동에 관한 대학의 독자적인 자율성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유신 이후, 대학은 그러한 조건을 성숙시켜 나갔지만,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은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약칭, 민교협)가 결성되었고, 1989년 3월에는 대구·경북 단위 지회도 출범하였다.

당시 민교협 대구·경북 지회에 참여한 교수들의 상당수는 지방사회연구회에 가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5공 정권과 6월항쟁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시국선언과 같은 형태로 드러내기도 한 교수들이다. 민교협의 이념은 전교조의 그것과 많은 부분 합치되는 것이었다. 대경 민교협은 전교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 핵심은 1989년 5월 26일, ‘교직원 노조운동에 동참하면서’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대경 민교협 소속 16명인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김민남을 위시한 총 70명의 교수가 전교조에 가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수가 전교조에 가입한 일은 전국에서 처음 있던 일이기 때문에, 노태우 정권에 의한 탄압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졌다.

민교협 대구·경북지회는 교육과 정치 민주화 이외에도 환경, 농업, 노동, 학생 운동 등 각 민주화운동에 학술적 지원을 해왔다. 대경 민교협은 그것이 출범하던 시기 바로 이전에 벌어졌던 경북 고추싸움 현장조사¹⁰³⁾와 같은 활동을 통해 농민운동을 지원했다. 또한 산동골프장 건설 저지운동과 팔공골프장의 농약 투여사건에 대한 농민들의 투쟁에 지원활동을 벌였다. 91년에 터진 두산전자의 폐물 식수 오염사건에 대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설립에 일조했다.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도 벌어져 노조활동에 대한 선언적 지지와 함께, 김형기, 이윤갑, 홍덕률, 최병두 등이 지역 노동운동가들과 함께 “노동자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학내 민주화운동도 치열했다. 교수협의회를 통한 총선직선제 쟁취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대학교 분회별로 이루어진 투쟁이 더 많았다. 경북대와 영남대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다른 학교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대구대학의 경우 대학의 교주였던 전 총장의 공백으로 직접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민교협의 윤덕홍 교수가 당선되었으나 재단 측의 방해로 당선이 무효화된 사건도 있었으며, 대구대에서는 민교협 교수와 반민주적 교수들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가톨릭대학(전 효성여대)의 경우는 천주교 대구교구의 보수성으로 학내 민주화가 뒤쳐진 상황이다. 계명대에서 민교협의 활동과 탄압은 두드러졌다. 전국 최초로 교수직선제를 얻어낸 계명대는 총장 신일희가 복귀하면서 직선제를 폐지했고, 재단 측은 그것을 반대한 교수들을 해직, 징계시켰다. 그들에 대한 복직 운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구·경북 민교협은 각 대학 단위의 민주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민교협은 대학별 교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총장직선제를 도입하는 결정적 역할을 구심적 역할을 했다.

103) 이호철, 유명기가 행했던 이 연구는 지방사회연구소의 연구과제였다. 지사련은 이 조사를 통해 89년 초 공청회를 가졌다.

3) 참고 문헌

- 배창환, 「대구지역 교육운동의 회고」 이만호선생 퇴임기념문집 『교육과 민주화』, 대구교육연구소, 2000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10년사』 2000년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푸른나무, 1989
- 이석우, 「대구·경북지역의 Y교사회 활동과 이재원 선생님」 이재원, 『참교육의 길』 사람, 1996
- 이철국, 「민중교육지 사건과 교육민주화운동」 『현대 한국을 뒤흔든 60대사건』 신동아, 1988

문화운동

1) 개요

문학과 예술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노동, 정치, 교육, 학생, 빈민, 인권, 평화, 여성 운동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문학과 예술은 투쟁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끄는 선전 도구로 쓰였다. 전시나 공연은 때에 따라서 성명서 발표나 시위보다 훨씬 대중에 대한 파급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그 예술 자체가 일정한 진정성을 가진 작품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가령, 리얼리즘에 대한 미학과 예술사회학의 평가가 그러한 것이다. 문화 예술운동은 다른 사회 운동만큼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문화 예술 운동은 직접적인 저항보다 소극적인 의사표현과 점진적인 형태의 운동 양식으로 전개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대학 울타리 안의 하위문화(subculture)적 요소에는 저항의 성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심에 문화예술운동이 있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1980년대 이전에도 문화 예술운동이 벌어졌다. 마당극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주로 대학의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당시의 운동은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입장이 강했다. 전통문화와 민중문화를 같은 것으로 보면서, 지배계급이 향유하는 순수(고급)문화, 대중들이 즐기는 대중문화와 또 다른 각에 민중문화를 설정하였다.¹⁰⁴⁾ 그래서 순수문화를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문화로 규정하는 동시에, 대중문화를 서구 제국주의가 퍼트리는 퇴폐적인 '팝 킬러'로 비판하는 견해가 강했다.

한편, 자유주의 성향의 예술가들은 예술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갈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주관적인 예술세계를 검열을 통해 통제하려는 권력에 맞선 그들은 예술을 통해 체제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필화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에 지식인들은 문학과 예술의 자율성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권은 탄압하기 일쑤였다. 대학교수와 기성 작가들이 이러한 성향을 나타내었다.

1980년대 문화 예술운동은 좀더 치열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는 이전의 민중문화를 지향하는 그룹과 자유주의적 예술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활동가들은 장르를 통한 메시지 전달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기며 현실에 개입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예술운동 소집단이 결성되어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그 중에는 '우리문화연구회'와 같은 운동가 중심의 그룹도 존재하였으며, 미술, 문학, 연극, 음악, 영화 등 각 장르마다 다양한 모임이 생겨났다.

특히,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지식인과 학생들이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을 모색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직접적인 정치 민주화운동 대신, 문화

104) 아놀드 하우스, 1983, 『예술의 사회학』, 최성만, 이병진 역, 한길사 -를 참조할 것.

예술 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신념과 예술적 취향이 결합한 대학의 문화 예술운동은 조직을 확장해 나갔다. 일부는 문화 생산자로서, 또 다른 일부는 비판적 수용자로 예술제도 내에서 투쟁을 이루어 갔다. 또 일부는 문화예술을 이론적으로 좀더 깊이 파 들어가면서 비판적 입장을 이어나가기도 한다. “문예미학회”가 그러한 사례이다. 그들은 사회변혁에 운동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도 실천이지만,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유용한 이론을 생산하는 것도 실천의 한 가지라고 믿었다. 1990년대 문화 예술운동은 1980년대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 놓은 조건 아래에서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간다. 한편으로는 1980년대에 대한 반성과 정리도 이어졌다. 그래서 1960, 70년대부터 논의되어온 검열 문제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에 운동의 역량을 모으기도 했다. 1980년대를 통해 열어놓은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운동 방향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문화적 종 다양성의 문제 제기가 그중 하나이다.

지역의 문화 예술운동가들 중 상당수는 운동가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더러는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들이 펼쳐놓은 ‘새로운’ 예술은 기존 예술계에도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며, 예술 발전의 한 축이 되기도 했다.

2) 대구·경북지역 문화운동사 시기별 개괄

(1)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신군부 등장에서 6월 항쟁까지의 문화예술운동

① 우리문화연구회

1985년 2월 창립된 우리문화연구회(약칭 우문연)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난 문화 운동의 핵심 단체이다. 우문연은 각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모여 설립되었다. 그 가운데에 속한 경북대 민속문화연구회 출신의 영향으로 우문연은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다.¹⁰⁵⁾ “우리 문화”는 민요, 마당극, 탈춤, 굿, 풍물 등의 민속문화를 통틀어 부른 개념으로, 부르주아 문화와 대중문화에 침식당해 설자리를 잃어 가는 민중문화를 복원시키려는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문화연구회 소속 활동가들이 아직 대학생이었던 1980년 4월 19일, 경북대 민속문화연구회가 주도한 창작 탈춤극 ‘냄새굿놀이’는 지역 문화예술운동의 앞 장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민속문화연구회가 경북대 시계탑 앞에서 공연한 이 작품은 4·19 20주년 기념행사의 한 가지로 기획되었다. 냄새굿놀이의 핵심에는 반민주라는 썩은 냄새를 내쫓는 굿판이다. 그 중에

105) 우문연은 자신들의 소개에서, “우리문화의 지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것말투성이인 왜곡된 문화를 거부합니다. 퇴폐적이고 소비, 향락적인 외세문화를 거부하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민중문화를 원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더불어 아파하고 해소해 나가는 공동체문화를 원합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는 갇힌 문화를 거부하고 뜻에서 뜻으로 이어지는 열린 문화를 지향합니다.

자주적이고 건강한 민족문화!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실천하는 열린 문화! 이것이 바로 살맛 나는 우리 문화의 나아갈 길입니다.”

는 공연장을 감시하기 위해 관객 속에 숨어 있는 ‘짹새’를 가려내는 등 관객의 호응을 자아낼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추었다. 공연이 끝난 후 흥분한 학생들이 교내 박정희 동상으로 몰려가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¹⁰⁶⁾

이와 같이, 1970년대부터 시도된 마당극 부활은 1980년 초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해졌다. 마당극 운동은 그것이 가진 비주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대중들에게 알려져 갔다.¹⁰⁷⁾ 1984년에 접어들면서 문화예술 운동은 한 단계 도약을 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민중문화운동협의회”가 4월에 결성되면서부터이다. 1980년대 초반에 대학가에 선을 보인 대동계가 ‘굿 판’을 통해 새로운 시위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대학에는 새로운 문화 동아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문화연구회의 창립 배경에는 지역 문학 동인지 “분단시대”가 자리잡고 있다. 청주와 대구의 젊은 작가들이 모여 펴낸 “판화시집 분단시대”¹⁰⁸⁾는 지역 문예운동에서 기념비적인 저작이다. 대구·경북의 김종인, 김윤현, 김형근, 김용락, 배창환, 정대호와 충북 청주의 도종환, 김창규, 김희식(정하수와 박용진의 판화 작품)이 함께 엮은 분단시대는 주로 통일, 민주화,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었다. 대구의 동인들은 경북대 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 출신들이었다.¹⁰⁹⁾ 이들은 1985년 1월 초순 배창환의 시집 “잠든 그대” 출판기념회장에 모였다. 대명동 가톨릭문화관(현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 모인 이들은 문화운동 조직에 대한 필요를 공감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한다.

이 때는, 분단시대의 동인 가운데서도 일부가 속해있었던 부정기간행물(무크) “일꾼의 땅” 편집진과 교류를 해나가는 시기였다. 서울의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이 한때 그러했던 것처럼, 무크지는 잡지의 기능을 가진 채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그래서 일꾼의 땅에는 문화예술운동에 관심을 둔 많은 인물들이 들어와 있었다.¹¹⁰⁾ 거기에는 박정희 유신 반대 데모를 한 김사열, 이균옥 등 경북대 “탈” 동아리 출신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분단시대”와 “일꾼의 땅”의 주요 활동가들이 통합한 단체가 “우리문화연구회”이다. 이후 김진태, 김지민 등 대구시내 각 대학출신이 모이면서 우문연은 활동을 벌여 나갔다. 우문연은 각 분과별로 학술발표와 문학강연회, 미술교실, 전통예술 강습회, 영화 상영회 등 문화활동을 벌여나가면서 소식지를 펴나갔다. 김재호, 김용락, 배창환 등이 실무를 맡아 살림을 꾸려나갔다. 우문연은 사무실을 최초로 동구 신천동에 개설했다가 이후 북구 칠성동 경명여고 근처, 5층건물 지하로 옮긴다. 그 후 해체할 때까지 사용하던 근거지는 대명동 “예술마당 술”

106) 정지창, 「대구지역 마당극 작품 해설」 <사람의 문학> 1994, 겨울, p.55

107) 그 와중에는 역설적인 상황도 있었다. 신 군부가 정권을 잡은 초기, 관 주도의 전통문화 이벤트가 개최된 것이다. 정통성이 약했던 전두환 정권은 프로야구 리그 창설 등 대중문화의 유희정책과 함께 ‘국풍’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과시적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의 해계모니를 민주화운동진영에 빼앗기려 하지 않았다.

108) 도종환, 김종인 외, 1985, 『분단시대 판화시집』, 우리

109) 이들은 교내 “경대문학회” 회원들이 많았다. 이후, 이 모임에서 많은 문화예술, 교육운동가들이 배출되었다.

110) 일꾼의 땅의 동인은 다음과 같다. 김사열, 김영동, 김용락, 김재호, 김종인, 박근배, 박방희, 박병준, 배창환, 사공 준, 유연창, 윤재권, 이균옥, 이상익, 임진호, 장병윤, 정대호, 정안면, 현담 등.

인근이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문연은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적으로 해체하면서, 서로 다른 조직으로 발전해갔다.

② 대구 민족극 운동

대구의 문화예술 민주화운동에서 마당극이 기여한 바는 크다. 민족극은 예컨대 다른 지역에서 1980년대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장르이다. 예컨대 서울의 “연우무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대구의 무대 공연 예술운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 먼저 이론과 실제의 저변이 두터웠다는 장점이 있다. 정지창, 이강은 등 학자 평론가들이 연극과 마당극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며, 우리문화연구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의 동아리에서 많은 인력을 배출했다. 무엇보다도 작품의 주제가 다양하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놀이패 “탈”, 극단 “시인”, 극단 “떼 풀이”, 극단 “한사랑”, 극단 “처용” 등은 연극과 마당극, 탈춤 등 조금씩 다른 양식을 갖추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었다.

본격적인 민족극 운동은 1983년경부터 시작되었다. 경북대 민속문화연구반 출신을 주축으로 1983년 결성된 놀이패 “탈”은 거창 양민학살을 다룬 ‘이땅은 니강내강’, 경북 선산군 산동골프장 건립 문제를 다룬 ‘꿀푸 공화국’, 전교조 해직교사를 주제로 한 ‘선새임요’, 노동자 파업을 다룬 ‘단결투쟁’ 등과 같이 역사, 정치, 환경, 노동, 교육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대표적인 민족극 단체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탈”은 초창기에는 시나리오와 연출 작업에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했다. 그 이유는 예술 작품에 대한 개인의 독점적인 소유 권리를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탈”과 같은 해 창립된 극단 “시인(是認)”은 경북대 극예술연구회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탈”의 성원들이 탈춤 동아리 출신이라며, “시인”은 연극동아리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창립작품인 ‘너도 먹고 물러나라’ 이후 ‘파수꾼’, ‘출세기’, ‘전천후 선생님’, ‘서서 잠드는 아이들’ 과 같은 작품을 선보이며 마당극 전문극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들의 대표작 ‘너도 먹고 물러나라’는 무대극과 마당극을 결합한 방식으로, 극중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거는 방식처럼 수용자들의 몰입을 차단시키는 소격효과를 꾀했으며, 이는 극단 “시인”의 특징이 되었다.

극단 “한사랑”은 1988년 창단된 이후 ‘종이도시’ ‘단발령’ ‘벽’에서와 같이 줄곧 도시빈민문제를 다루었다. 극단 “떼 풀이”는 “먹이사슬” 등의 작품을 통해 국내 유일의 반핵 극단으로 알려졌다. 극단 “처용”은 대구 연극무대에서 자리를 잡고있던 기성 연극 단체였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황석영 원작의 ‘한씨연대기’를 계기로 민족극 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시 시대에 영합한 선택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처용의 대중성을 통하여 민족극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문화운동의 외연을 좀더 넓혔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1988년 7월에는 영남지역 마당극운동 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뒤이어 전국민족극협회(약칭, 민극협)가 출범하여 마당극과 연극의 결합이 좀더 본격화되었다. 민극협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약칭 민예총)의 산하 단체로 등록해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들 대구의 진보적인 민족극 단체는 해산과 활동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그 이유는 민족극

이 창작과 기획, 공연 과정에서 드러낸 문제점¹¹¹⁾이나 문화예술 운동의 한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연극시장의 위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달라진 문화 환경은 극단의 지형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노래패 “탈”은 극단 “진달래”와 통합하여 극단 “함께 사는 세상”을 다시 출범한다. 창립공연작으로 기획된 ‘노동자, 내 청춘아’는 노동현장에서, ‘해직일기’는 전교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북 각 지회를 돌며 공연했다. 한편 극단 “한사랑”은 1993년, 대구노동자 운동연합(약칭 노문연) 산하에서 활동하던 극단 “시월”과의 결합을 통해 극단 “가인”으로 거듭났다. 이후 함세덕의 ‘감자와 쪽제비와 여교원’, 황석영의 ‘장사의 꿈’ 등 여러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대구 민족극은 “함께 사는 세상”과 “가인”의 두 축으로 재구성되었다.

(2) 1988년 이후: 문화예술 운동의 저변 확대

① 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를 거치는 시기에 대구·경북의 문화운동은 좀더 복잡하고 다양한 조직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운동노선에 의한 재편이기도 했고,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문민정부 출범과 같이 변화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롭게 길을 터 나간 과정이기도 했다.

이론과 실천의 통합도 나타났다. 1980년대 말, 우리문화연구회는 극단 “함께 사는 세상”과 통합하여, “민중문화예술운동연합”(약칭, 민예련)을 만들었다. 여기에 이균옥, 김지민은 핵심역할을 수행했다. 민예련은 이후에 양 갈래로 조직이 나누어졌다. 박말금 등 민중민주주의 운동계열의 활동가들은 “민중문화운동연합”(약칭 민문연)을, 민족해방주의 운동계열은 “노동자예술문화운동연합”(약칭 노문연)을 건설했다.

민문연은 이후 조직의 운동가들이 여러 방면으로 진출하여 활동했다. 최윤영은 노동교육협회에 참여하여 노동운동을 이끌었다. 특히 노동교육협회는 그때까지 시위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불거리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운동의 활로를 모색했다. 김영동, 최수환, 김지민, 정하수 등은 1995년 “R문예연구소”를 만들고, ‘힘의 예술, 아름다운 삶’이라는 기치 아래 예술 비평과 창작의 발전을 도모했다.

노문연은 “오, 꿈의 나라”와 “파업전야”를 현장에서 자주 상영하면서 경찰들의 표적 집단이 되었다. 노문연은 정당시장 네거리에 사무실을 두고 노동 현장의 문화적 역량을 확장시키는데 주력했다. 1993년경에 이르러 노문연은 해체하고, 산하 분과 예술단체들은 극단 “가인”, 노래패 “모토”, 대구·경북민족미술인협회, 청년문화회, 영상집단 “새날” 등은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운동은 경북에 활동가가 생기면서 자생적인

111) 마당극의 경우, 무엇보다 극단은 공연에 적합한 무대장소를 구하는 일이 어려웠다. 당시, 마당극 공연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는 삼면무대를 갖춘 공간은 대구에서 동아쇼핑센터 비둘기 홀이 유일했다. 하지만 이곳은 높은 대관료와 당국의 음성적 탄압으로 준비의 어려움이 컸다. 그래서 대신 가톨릭근로사회관이나 가톨릭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구미의 문화집단 “말뚝이”, 안동 문화운동을 이끈 이종원, 그리고 포항에서 풍물패와 운동을 주도한 권오현 등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지역의 각 대학에는 단과대학 별로 문예운동반이 조직된다. 그 가운데서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가장 파급력이 컸던 동아리는 노래패이다.¹¹²⁾ 1980년대부터 통기타 연주와 함께 노래운동이 전파되면서 ‘민중가요’라는 독립된 영역까지 생겨났다. 노래동아리에서는 민요가락을 새롭게 편곡한 곡뿐만 아니라, 1970년대 김민기, 조안 바에즈, 한대수 등의 저항 포크음악과 1980년대 시위현장에서 애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 ‘민족해방가’, ‘오월의 노래’ 그리고 새롭게 창작된 ‘광야에서’ ‘사노라면’ 등이 주된 레퍼토리였으며, ‘노가바(노래가사바꾸어부르기¹¹³⁾)의 전통도 끊이지 않고 학습되었다. 대학에서 출발한 노래 소모임은 노동, 농민 운동 현장으로 퍼져 나갔다.

노래패 출신 중 소수는 전문 소리패에 참여하기도 한다. 1985년 창단된 소리패 “산하”, 그리고 1990년대 창단된 “소리타래”와 “봉우리” 등은 시위 현장의 찬조와 조직 운동가 작곡(악보 별도 첨부)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래패는 열악한 음반 제작 조건, 성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예술을 노동의 한 형태 내지 전략적 무기로 보았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노래운동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한 경향은 종종 예술적 가치와 정치적 입장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실제로 현실적인 소재를 다룸에도 결과적으로는 표현이 도식적이며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는 문제가 종종 벌어졌다.¹¹⁴⁾ 이처럼 문화예술 단체가 우후죽순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칠 때 생긴 조직이 지역 민예총이다. 사단법인 형태로 1994년에 창립¹¹⁵⁾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약칭, 민예총) 대구지회는 “우리문화연구회” 이후 전개된 대구·경북 문화예술운동을 가장 포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단체이다. 민예총 대구지회는 창립 당시부터 ‘우리 사회에 민주화와 통일, 민중의 복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내세우면서, 그 취지에 동감하는 지역 예술인들을 하나로 규합해 갔다.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예술운동가들의 구심체가 된 민예총 대구지회¹¹⁶⁾는 각 장르별 분과와 연구소, 특별위원회를 갖추었다.

112) 경북대의 “우리노래연구회”, 효성여대(현 대구 가톨릭대)의 “우리노래연구반”, 계명대의 “민요연구반”, 영남대의 “가락” 등은 80년대에 창단된 대학 노래패들이다.(우리노래반, 1986, 『80년대 우리노래 운동의 나아갈 길』, <북원문화>20호 p.279 참조) 이 중, 효대 우리노래연구반은 학내단입으로 해체되었으며 나머지도 대부분 호지부지 되어버렸다. 다만 계명대 노래패는 노래극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113) 가령,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은 “하늘엔 돌맹이가 나르고, 땅위엔 최루탄이 터지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무참히 짓밟힌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돈있으면 돈있으면)/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빚있으면 빚있으면).. 과 같은 가사로 바뀌었다.

114) 그래서 예술계에서는 사회참여적인 작품의 질이 문제되기 이전에 이른바 비판론자들은 예술의 전문성이 주장하면서, 문화예술 운동의 생산물이 일정한 미학적 수준을 밑돈다고 본다. 이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아마추어리즘이 가져온 결과 때문이다. 제도권 예술에 편입하기를 거부한 젊은 작가들은 예술대학원과 화랑, 공연장 등 예술 제도와의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기법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115) 1994년 1월 20일 오후 2시,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창립대회가 열렸다.

116) 꾸준히 지역 문화예술 운동을 이끌어 온 활동가들이 지회장을 맡아왔다. 그들은 정지창, 이하석, 김창우, 이균옥이다.

각 분과별 산하 단체는 노문연 시기부터 활동해오던 단체들도 대부분 소속되어 있었다. 1987년 “대구·경북민족문화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대구 작가회의”,¹¹⁷⁾ 각 대학 풍물동아리 출신이 모여서 1995년 결성한 풍물굿패 “마당”과 그 후신인 “매구”, 1989년 창단한 풍물굿 “얼쭈패”, 연간 100여 차례 공연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쌓은 노래패 “소리타래”, 1994년에 창립해 음반과 공연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노래모임 “좋은친구들”, 극단 “가인”과 “함께사는 세상”, “아메닉”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대구독립영화인협회”와 애니메이션 그룹 “모션&픽쳐”, 봉산탈춤을 연구하고 보급한 “홍터”, 전교조 운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청소년문화기구 “우리세상”,¹¹⁸⁾ 그리고 미술분과의 “대구·경북민족미술인협회”(약칭 민미협)와 같은 단체가 대구 민예총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② 새벗도서관

1989년 7월 문을 연 새벗도서관은 전국의 도서관 운동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다. 새벗도서관은 중구 봉산동의 4층 건물에 책 2,000권을 가지고 출발했다. 개원할 때는 청소년 교육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정했다. 1990년 1월 경북대 사범대학에서 ‘청소년 열린교실’을 개최했으며, 이후 ‘새벗 청소년 도서관’이란 이름으로 도서관 일부를 중구 동인동으로 분가했다.

새벗도서관은 이후 노동자들의 풍물, 문학활동, 답사 소모임 활동을 주로 벌여나갔다. 1993년 6월, 중구 남일동(현 중앙시네마 뒤편 골목)에 민간도서관을 정식으로 설립했다. 여기에는 민교협 최상천(대구 기톨릭대)이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지원 없이 시민들로 구성된 설립위원과 평생회원을 모집했다. 그들의 기금을 모아 대구 최초의 민간도서관을 만든 것이다. 장서를 20,000여권으로 늘였고, 여러 행사를 주최해 왔다. ‘새벗영화제’, ‘새벗영화강좌’, ‘문화기행-1회 경주남산 이후 30여 차례’, ‘강연회-서정오, 신영복, 전우익 등 작가와의 만남’, ‘민요교실’ ‘목요일이야기마당’, ‘독서토론 모임’과 ‘공개독서토론회’ ‘시민강좌-1회 김용락’, ‘대구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이 그것이다.

1999년 달서구 이곡동으로 이전한 새벗도서관은 대구 제1호 사립 공공 도서관으로 등록했다. 거기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와 강연회, 마을 놀이터 실태조사, 구의회 방청사업 등을 전개했다. 새벗도서관의 성공은 다른 지역의 도서관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이전에도 사립도서관은 있었지만, 그것은 예컨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과 같은 특수목적 도서관이 많았다. 새벗도서관처럼 운동의 한 형태로 시작해 지역민들의 기금을 모아 설립한 사립 공공도서관은 없었다. 지식 정보의 소유에 따른 계급불평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지역 사회에서 도서관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사립도서관의 운영은 학술운동인 동시에 문화운동으로

117) 1999년 2월, 대구작가회의로 거듭난 민족문학 운동은 정지창, 김용락, 배창환, 이하석 등이 이끌었다. 처음에는 송재학, 장옥관 등 “분단시대” 동인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을 발전시켜 왔다.

118) “우리세상”은 처음부터 전교조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우리세상은 경북대 사범대학과 전교조를 중심으로 매년 문화활동과 열린교실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무보수로 활동하는 교사진 가운데, 경북대 교육학과 김민남 교수는 80년대 당시 수배 중이던 이도걸과 같은 전교조 교사들을 은신시키는 등 교육운동에 헌신했다. 배창환(성주 벽진중)과 현 최미향 소장은 경화재단의 해직교사 출신이다.

볼 수 있다.

③ 예술마당 술

“예술마당 술”은 애당초 운동의 결사체라기보다 장소의 성격이 더 강했다. 대구는 진보적인 입장에 선 예술가들의 예술작품을 공연, 전시할만한 장소가 197, 80년대에 거의 없었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예술마당 술”은 대구·경북 지역 문화운동의 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¹¹⁹⁾¹²⁰⁾ 1990년, 뜻있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설립된 예술마당 술은 지금도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지창(연극평론가, 영남대 독문학)이 있었다. 그는 민족극 연구를 해오면서 1980년대 대구 마당극 운동이 겪었던 어려움 중 가장 컸던 공연무대의 미비함을 현장에서 느꼈다. 이에 김재석(연극평론), 이하석(시인), 허창수(신부),¹²¹⁾ 이재용(치과의) 등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예술마당 술의 산파역을 맡았다.

그는 모금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김윤수(영남대 독문학, 현 국립현대미술관장)와 장미진(미술평론가)의 힘을 빌어 ‘건립기금 마련 작품전’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 동참한 문화예술인, 화가들은 장일순, 김지하, 신영복, 김호득, 신학철, 임옥상, 박불똥, 정하수, 이철수, 주완수, 최정현 등 총 67인이었다.

1990년 10월 19일 정식으로 문을 연 예술마당 술은 개관기념으로 제3회 전국 “민족극 한마당”(10월 18일~11월 11일)을 개최하였다. 그 당시까지 정식지회가 창립되지 않았던 대구 지역의 이 행사에 전국민족극협의회가 주최를 맡고, 민예총이 후원을 맡았다. 또한 전교조 대구지부가 협찬을 함으로써 많은 교사 학생 관객들의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무대공연과 함께, 미술작품 전시회, 강연회, 영화제, 세미나 등 거의 모든 문화행사를 소화했다. 특히 민족 미술과 리얼리즘 계열의 미술 전시회와 미술강좌는 보수적인 대구 화단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지역 미술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평양 세계청소년 축전에 출품한 그림 때문에 구속된 정하수 사건은 대구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1991년 창립된 대구·경북 민족미술협의회(약칭, 대경 민미협)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민미협에 소속되어 있었던 유홍준은 예술마당 술의 ‘한국미술사 강좌’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문화유산답사 열기를 주도했다. 예술마당 술은 이외에도 청소년, 어린이 미술교실과 “미술비평 연구회” 등 지역 미술에 일정한 영향을 끼쳐왔다.

예술마당 술은 최재우, 도진용 등이 실무를 담당했으며,¹²²⁾ 정지창, 김영동, 유홍준 등은

119) 대안적 공연 공간으로 “열린공간 Q”가 있다. 수성교 동편에 있는 열린공간 Q는 90년대 초, 낡은 영화관을 개조하여 만든 극장구조로 되어있다. 이곳은 예술마당 술과 달리, 시네마테크 영화운동을 펼친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이다. 여기서 제3세계 영화 특별전과 지역 마당극 축제도 개최되었다.
120) 각 대학의 야외 공연장은 시위 장소이자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기에 적합한 시설이었다. 특히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야외공연장은 80년대 민족예술 운동의 단골 장소로 이용되었다.
121) 독일계 허창수 신부는 그 당시 대구 가톨릭 신학원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허창수는 이미 70년대부터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었다. 구미 인동 성당에 재임할 때부터 “일꾼의 땅” 등 대구·경북 문화운동가들과 접촉을 해왔다. 예술마당 술의 영화제에서 상영한 영화 비디오테이프의 상당수는 허창수가 제공한 것이었다.
122) 박재욱, 도진용은 “관” 기획사를 운영하며, 예술마당 술을 비롯한 전교조, 문화예술 운동의 출판물을 인쇄 배포하기도

소식지 편찬과 학예연구(큐레이터), 강의를 했다. 이들 뒤에는 김윤수가 후견인 역할을 맡았다. 영남대 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해직과 복직, 또 해직과 복직을 거듭한 김윤수는 염무웅, 이강은, 정지창, 김창우 등과 함께 문예운동에 학술적인 뒷받침을 이끌었으며, 김영동, 유홍준과 같은 후속세대를 길러냈다. 예술마당 술은 기관의 검열 간섭으로부터 예술가와 운동가들의 활동을 엄호하는 합법적인 공간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아울러 대구·경북 문화예술운동과 교육 운동에 여러 행사를 통해 재정적 지원과 언론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운동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 또한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④ 문예미학회

문예미학회는 군사정권 이래 금기시 되어온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예이론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출발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하고, 탈 근대주의 이론이 수입되는 와중에서 현실비판적 이론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¹²³⁾에서 대구 각 대학에 있던 소장 인문학자들은 본격적인 좌파 문예이론을 연구하고자 모였다.

모임의 중심에는 홍승용이 있었다. 대구대 독문과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비판이론과 리얼리즘 등 진보적 인문학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들을 규합해 갔다. 그러던 중, 1993년 초 시내 전통찻집 ‘사림’(신우서적이 있던 건물 2층)에서 첫 번째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 그 이후로 몇 차례 모임을 더 하면서 투합한 학자들은 홍승용, 서경석, 허상문, 양종근, 김용락, 이강은, 정지창, 정재찬, 김규종 등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민교협 등 다른 운동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학자들이었다. 이 중 정지창이 문예미학회의 회장을 맡았다. 이들은 대학에서 국문학, 노문학, 독문학, 영문학을 전공한 인문학자들이었다.

문예미학회의 가장 큰 성과물은 잡지 ‘문예미학’지의 발간이다. 무크지 형태로 발행된 문예미학은 민족문학과 리얼리즘, 현실참여적 문화예술 이론을 주로 다루었다. 문예미학회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토론회-개인별 연구 집필-공개강좌-학술잡지 발행’의 주기를 반복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무크지의 형식을 띄고 있었지만, 그렇게 꼭 짜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잡지를 발간해 온 것은 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컸다. 김용락은 사무적인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했다. 그는 문예미학회에서 펴낸 잡지 및 단행본들을 편집, 인쇄, 유통하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전문적인 학술지가 가지는 특성상 모임의 운영과 잡지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들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예미학회는 학술진흥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외부 기관이 자유로운 정치적 학문적 견해를 제시하는데 걸림

했다.

123) “문예미학” 창간호 머리말에서 편집위원회는 그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자본의 지배논리가 전 지구를 뒤덮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적 허무주의와 패배주의가 진보학계를 짓누르고 있다. 과학적 현실인식에 기초해 민족해방, 노동해방을 한 발 앞당기고자 한 합리적 노력이 충분한 대안 없이 비웃음의 대상으로 회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억압과 착취의 사회구조가 극복될 전망이 투명해진 것은 아니다...”

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정치적인 검열보다 상업적인 자기 검열이 학문 발전에 더 유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예미학'지 창간호가 발간된 해는 1994년이다. 이 때는 '이론'과 '문화과학' 등의 잡지도 창간되던 시기였다. 그러한 잡지는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조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에서 일정부분 편집진 이외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했다. 문예미학회는 연구자들이 좀더 자유로운 사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심사제도도 최소한으로 자제했다.

그 결과, 애초의 주변에서 나오던 우려와 달리, '문예미학'은 전국적인 필진을 확보한 문예이론지로 생존할 수 있었다. 그 중심에는 자신들을 스스로 '경산학파'로 부르는 지역 지식인들의 학술운동이 존재한 것이다. 보수적인 대구·경북에서 마르크스, 루카치, 까간, 프랑크푸르트 학파, 알튀세르, 이글턴 등 좌파 문예이론의 연구 환경을 마련한 것은 첫째, 자유로운 정치적 학문적 표현기회의 확대와 둘째, 서울이 아닌 지방이 지식 담론을 주도해 간다는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⑤ 사회과학 서점

1980년대는 사회과학 서점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주로 대학 앞에 자리잡은 몇몇 서점은 대학교재나 잡지, 일반 베스트셀러 이외에, 민주화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다룬 학술적인 책을 많이 취급했다. 그 책은 '사회과학 서적'이라는 말로 통칭되었으며, 사회과학 서점이라는 말도 따라 붙었다. 대구의 주요 서점으로는 경북대의 "마가책방", "일청당", 계명대의 "청산글방"과 "새날책방", 영남대의 "남도책방", 동성로에 있던 "신우서적" 등을 꼽을 수 있다.

마가 책방은 1980년대 동성로 대구백화점 북쪽 골목에 처음 문을 열었다. "분단시대" 동인들과 "우리문화연구회"의 활동가들이 자주 찾았던 이 서점은 1980년대 말, 경북대학교 북문 쪽으로 장소를 이전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인근으로 또 한 차례 장소를 옮긴 마가책방은 2000년대에 들어와 문을 닫는다.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정문 쪽에 있던 "청산글방"은 근처 "감천식당", "우리 복사"¹²⁴⁾와 함께 '운동권'의 모임 장소였다. 청산글방이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1990년대 중반 계명대 민주 86학번 동기들이 공동 출자하여 "새날책방"을 세우고 정기소식지 '직립보행'과 토론회 행사를 벌여 나갔다.

사회과학 서점이 대학 근처에서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성로 아카데미 극장과 제일 극장 사이 좁은 골목에 위치했던 "신우서적"은 예닐곱 평되는 좁은 공간 전부를 인문사회과학 도서로 채운 전문서점이었다. "우리문화연구회" 출신의 권오국이 연 "하늘북"은 사회과학 서점이라기보다 대형서점에 가까운 책방이었다. 하지만 역사 사회 정치 경제 예술 철학 등의 전문서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서점들보다 높았으며, '저자와의 대화' 같은 정기행사와

124) "우리문화연구회" 구성원이었던 김진태가 1987년 문을 연 복사인쇄점이다. 김진태는 문화예술 운동을 하던 80년대 중반, 중구 중앙파출소 맞은편 건물(심지 레스토랑이 입주한 상가) 위층에 "우리 출판사"를 입주하여 연구회의 자료를 출판하였다. 경영난으로 출판사를 문 닫은 이후, 김진태는 계명대학 대명동 캠퍼스 정문 청산글방 옆 좁은 틈새 공간에 "우리복사"라는 이름의 가게를 다시 열었다. 여기서 학생, 노동 운동에 쓰인 문건, 팸플릿, 유인물 등을 전적으로 찍었다.

모임, 무료 정기간행물(줄탁)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의 책과 글 그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분도서원"은 천주교 대구교구에서 운영한 종교서점이었으나, 일반 서적도 함께 취급하였으며, 인문사회 도서도 많이 취급했다. 197, 80년대 대구·경북 교육, 농민, 빈민, 노동, 문화예술 운동에서 가톨릭이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다. 왜관 수도원과 대구교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천주교는 신학 서적 이외에도 가톨릭이 관여했던 여러 사회 운동을 소개하는 책들을 펴냈으며, 해방신학, 아나키즘, 제3세계예술, 영성운동 등에 관한 서적 또한 발행하였다. 헌책방들은 당연히, 인문사회과학 서적만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회과학 서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것은 여러 지식인, 학생들이 '불온서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법 처리되던 시기에, 운동을 벌이던 개인과 조직이 수배나 이사 와중에 소유하고 있던 책들을 헌책방에 내어놓은 일이 흔했다. 이러한 헌책방은 대학 인근에 한 군데씩 이상은 존재했으며, 남산동 남문시장 건너편과, 동인동 태평로 쪽에 밀집되어 있었다.

"사회과학" 서점은 책만이 유통되는 것은 아니었다. 각종 토론회와 학습소모임 장소로 활용되었다. 또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판 허가를 받지 않은 책도 음성적인 경로로 판매되었으며, 더러는 지역 대학원생들에 의해 외국 텍스트가 번역되어 책으로 나온 경우도 있다. 그 책들은 주로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학자들이 쓴 책이다. 그밖에도 사회과학 서점에서는 음반, 달력, 판화, 수첩 등 저항권에게 '화염병을 제외한 모든 무기'를 제공했다. 큰 규모의 유통망을 확보할 수 없었던 지역의 학술소모임이나 노래패, 해직교사들은 이러한 서점을 통해 운동자금을 조금 확보할 수 있었다.

3) 참고문헌

도종환, 김종인 외, 『분단시대 판화시집』, 우리, 1985

문예미학회, 『문예미학』 창간호, 1994

민예총 대구지회, 『대구 민족예술』, 1999

우리노래반, 『80년대 우리노래 운동의 나아갈 길』 『북현문화』20호, 1986년

무크 『일꾼의 땅』 1호, 1984

정지창, 『대구지역 마당극 작품 해설』 『사람의 문학』, 1994년 겨울.

1) 개요

민주화와 관련한 여러 운동들의 주요 지지기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운동내 종속적 위치로 전락하기 쉽다. 가부장적 지배라는 사회구조 하에서 여성들은 운동내 모든 부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게 늘 종속되었고, 기존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행동양식 속에 한정되었다. 즉 여성들은 운동과정에서조차 전통적으로 정의된 여성의 역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중적 부담을 겪었다.¹²⁵⁾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운동은 1945년 해방이후부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1950년대, 1960년대는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소극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1970년대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권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서구여성해방이론이 도입되면서 여성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1980년대는 1970년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여성운동을 계승, 발전하는 시기였다. 민주화와 관련한 여성운동, 특히 대구·경북의 여성운동은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여성이라는 성에서 기인하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인권의 해방은 정치·사회민주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는 여성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한 부문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대부분의 진보적 여성단체는 평화통일 및 정치·사회민주화를 기본적인 운동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¹²⁶⁾ 따라서 여성운동은 여성해방이라는 궁극적 목표 하에 민주화, 통일, 여성노동자, 농민의 권익확보 및 인권존중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주화운동의 주요 일익을 담당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더불어 여성운동 역시 새로운 변혁기를 맞는다. 사회주의의 몰락 등 국제적 변화뿐 아니라 문민정부수립, 지방자치제 실시 등 국내적 배경 역시 미흡하나마 민주화의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이에 여성운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성을 위한 운동으로 전환한다. 운동의 대상을 주부와 사무직 여성노동자로 전환하고, 여성들이 여성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게끔 하는 여성대중조직체로의 정체성변화가 그것이다. 1990년대 중반 다수 여성단체들은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특정 투쟁사안에 대해서는 공동투쟁위원회나 대책위원회 등의 형식을

125) 김명혜 편역, 『여성과 민주화운동』, 2004, 경인문화사, p.24

126) 진보적 여성단체의 결집체라 할 수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창립당시 회칙에서도 이러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 1987년 창립당시 여성연합은 여성을 억압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외세에 의한 분단, 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기본적 자유억압과 민중 억압적 경제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성연합의 매년 사업계획에는 평화·통일운동, 여성노동과 농민운동, 정치사회 민주화운동, 여성권의 운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여성연합의 회칙에 명시된 단체의 목표는 “본 연합은 여성운동 세력간의 조직적 연대를 이루어 나가며,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여성해방을 쟁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위음, 『열린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1998,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18

빌어 사안별 참여하는 방식을 택한다. 또한 사단법인을 통해 합법적 진보성 획득을 선언한다.

이러한 성향은 대부분의 지역여성단체들에서 나타난다. 지역여성단체는 당시 사회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지역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와 민주화운동단체 및 종교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여성소모임 등이 결집하여 80년대 후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단체들은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을 목표로 기층여성의 생존권 지원과 여성문제에 대한 지역내 확산, 여성권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당시 이들 단체들은 지역운동을 하는 여성단체이기보다는 총체적인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조직대상도 사무직, 생산직 여성노동자와 주부 등 거의 전 계층의 여성을 포괄하려는 성향이 강했다.¹²⁷⁾

반면,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여성단체의 주된 실천활동은 여성문제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지역내 여성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 생활과제 발굴 및 지역여성조직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¹²⁸⁾ 1990년대 사회적 정세변화에 더불어 민주화 문제에 대한 강조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대신,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내 구체적 생활운동 등에 그 강조점이 이동한 것이다. 최근의 이러한 여성운동 방향성은 언뜻 보기에 초기 여성운동단체가 가졌던 정치사회 민주화라는 절실한 운동목표에서 벗어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여성문제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것으로, 특히 여성문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담활동이 중심이 되는 여성단체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내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여성운동의 민주화라는 명분에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모두를 명백한 정치민주화의 범주내에 들여놓기가 주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장에서는 정치·사회적 민주화와 관련한 여성단체운동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여성해방을 위한 실천과 내용을 갖는 운동단체와 활동을 여성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창립부터 민주화 선행을 통한 여성해방을 자각한 대구여성회와 진보적인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의 연합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및 그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대구·경북지역 여성운동사 시기별 개괄

(1)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진보적 지역여성운동의 태동

1987년 6월항쟁을 기점으로 이전의 활동단체에 비해 이후에 등장한 여성단체들은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지역 여성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앞서 사회적·의식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여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이전 보수단체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127) 한국여성단체연합 위음, 정종숙, 남윤인순, 『지역여성운동』 『열린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1998,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145

128) 한국여성단체연합 위음, 정종숙, 남윤인순, 『지역여성운동』 『열린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1998,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p.147-151

1988년 1월에 창립한 '대구여성회'는 대구·경북지역 여성운동단체의 실질적 태동이라 볼 수 있다. 여성회의 실질적 내용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비공개적인 계모임이나 여성학 스터디 등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대구여성회의 모태는 1987년 4월 대구·경북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여성부장인 박숙자씨가 주도한 한 모임¹²⁹⁾이다.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서울지역의 여성단체들과 같은 여성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이 모임은 가칭 대구여성발전연구회로 발족한다. 이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김희선씨(87년 당시 여성의 전화 원장)의 대중강연회가 성공함에 따라 실질적 단체창립이 진행된다. 다양한 여성 문제를 다루는 공개단체로서 상담활동과 대중교육을 주요한 활동과제로 상정하면서, 대구여성회는 1988년 1월 23일 대구 YMCA 3층 강당에서 실질적 창립총회를 개최한다.¹³⁰⁾ 당시 상근자는 회장 김진희, 부회장 김영란, 사무국장 강도향, 실무간사 조성무, 이향분, 정삼선 등이었다.¹³¹⁾

회원들 대부분이 학생운동의 참여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체활동은 지역내 현장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것들이었다. 창립준비 과정에서 만난 영남의료원 장영이씨의 상담을 통해, 여성노동자가 직면하게 되는 여성조기정년문제 즉, 결혼정년제는 대구여성회의 첫 투쟁 사업이 되었다. 이후 1988년 8월 영남대학교 여직원 조기정년 철폐투쟁 건이 정식으로 상담 접수되면서 본격적 투쟁을 전개하고, 마침내 25세 정년을 28세로 연장하는 작지만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록 미흡하지만 영남대 직원 노동조합이 탄생되기도 했다.¹³²⁾

그러나 문민정부를 지나면서 대구여성회의 강조점은 변하게 된다. 활동방식에 있어 여성문제만의 고유성을 갖지 못한다는 반성과 당시 회원구성원들 대다수가 전문적이거나 비정규직, 주부들이나 점을 감안했을 때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이라는 여성회 방향성에 대한 회의는 대구여성회의 활동청사진을 제고하게끔 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 대구여성회는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전환이 시급함을 자각하고 이후 공청회,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대구여성의 전화는 진보적 여성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단체이다. 초기 대구·경북지역 대학의 여교수들이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대의 하에 1986년 첫 모임을

129) 대구시 중구의 '작은식당'에서 열린 이 모임에 당시 참여한 사람은 대구·경북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의 총부부장 박숙자, 윤정원, 박인주, 조성무, 우리문화운동연합 간사 박영래, 한교연극단 출신 주부 김남희, 교사 류정순 등이다.

130) 창립선언문에는 여성문제의 특수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사회참여와 그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를 목적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활동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직장여성, 주부, 노동자, 농민, 빈민여성 등 비민주적 사회 구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여성 대중들이 참여할 것이다. 모든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비록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라도 진정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통해 해소됨을 믿으며 우리 대구여성회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과 차별의 굴레를 깨뜨리고 남녀 평등한 인간해방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대구여성회 창립선언문 중)

131) 첫 상근자들이 출근하게 되는 사무실은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강도향의 아파트 거실이었다. 창립 직전 얻은 사무실은 모임의 성격을 빌미로 쫓겨나게 되고, 적은 액수로 사무실 구하기가 어려웠던 대구여성회는 강도향의 배려로 그녀의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한다.

132) 그 외에 초기 대구여성회의 주요한 활동은 여성회와 대구지역 여학생회연합이 주축이 된 변월수씨 무죄판결운동, 여성문화화당개최, 대구여성단체연합의 시작이 된 강정순씨 사건 등이 있고, 90년대 이후 탁아사업, 어린이 캠프, 성폭력대책 대구 시민단체협의회 결성, 정신대 할머니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갖고, 1987년 '에린회'라는 단체명으로 출발한다. 당시 외국에서는 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서는 이러한 개념조차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사회문제로 끌어낸 것은 여성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후 1989년 매맞는 여성을 위한 상담전화를 개설했으며, 1992년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은신처 '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1992년 11월 대구여성의 전화로 명칭을 개정하고 1995년 1월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대구지부로 가입,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두고 있다.

함께하는 주부모임은 사회운동경험이 전혀 없는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사회 활동에 대한 결의를 모았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이 모임은 1988년 말,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했던 주부 15명이 모여 시작되었다. 주부문제뿐만 아니라 주부들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역량회복을 목표로 하여 주부대상의 교육, 상담, 생활환경문제 등을 주요한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는 대구 크리스찬 아카데미 강좌를 수료한 이들이 설립한 단체로 1986년 12월에 출발했다. 설립목적은 여성의 자아실현과 주체적 삶을 위한 연구, 조사, 대화모임, 사회교육을 통해 한국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명시한다.

여성과학실험연구회는 지역 여성문제의 연구·조사와 여성의 삶의 질을 높여려는 노력에 동의하는 52명의 발기인들에 의해 1995년 3월에 창립되었다. 이 연구회는 창립 이전인 1992년부터 지역에서 여성학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전공자들이 모여 정기세미나와 월례간담회 분과발표회 등을 열었다. 대구지역의 구체적인 여성문제에 대해 조사, 연구함으로써 적극적 해결을 위한 대안과 실천방안 모색이 본 연구회의 목적으로 「여성과학실험」이라는 학술지도 출판하였다.

포항여성회는 1995년 직장내 차별을 직접 경험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투쟁하던 중 여성들끼리의 모임의 필요성을 절감한 김조숙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1993년 포항여성회 준비위를 꾸릴 당시, 지역내에서 발생한 양아버지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접하게 되고, 이 사건이 2년 반을 끌게 됨에 따라 1995년에 와서야 포항여성회가 창립되었다. 성추행 사건 당사자의 남자친구가 포항여성회 창립시 합류하여 사무실을 꾸렸다. 초기에는 성폭력문제 및 지역내 연대운동(용역 이준마문제, 비정규직 문제, 가정폭력 등)을 주로 하였고, 그 활동은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다.

(2) 1996년 이후: 진보적 지역여성운동의 연대모색

여성단체끼리 연대를 도모한 지역 여성단체는 현재 대구여성단체협의회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있다. 대구여성단체협의회는 1971년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로 조직되어 있다가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구시 단체들이 결성한 협의체이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상호간의 친목, 여성에 대한 계몽, 지역 행정기관의 지휘 하에서의 활동 등 보다 보수적인 경향을 띤다고 판단한다면, 대구·경북여성단체 연합은 이러한 협의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민주적,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합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대구·경북지역에서 80년대 후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소위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1996년 발족되었다. 지역여성들에 대한 공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대응보다는 연대방식이 보다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각 하에 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별단체의 성과물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진보적